



January

ARDEN 

2014 가든인

1



Outdoor Garden
하안정원 Snowdrop

Indoor Garden
꽃바구니를 활용한 바스켓가든

Garden Design & Story
오색채소의 매력 알아보기

아름다운 베란다 일동관리
귀농의 첫걸음 테스트
정원의 아름다움까지 소개

정기구독

테르메덴 무료이용권
2매 증정(10만원 상당)

9 772288 171000

10,000원

HOW TO GROW YOUR GARDEN

정원시공, 관리, 컨설팅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꽃은 우리나라 고급 경관 트렌드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자연과 가깝게 아름답고, 쾌적한 고품질의 경관으로 창출합니다.
우리꽃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당신의 정원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단조로운 베란다, 쓸모없는 옥상이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유럽풍 키친정원으로, 내 아이의 생태 놀이터로 재탄생됩니다.
피곤한 일상에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정원의 품격

잘 가꾼 정원은 주택의 가치를 높입니다. 정원의 주제와 식물소재는 적당한지,
내 정원환경은 어떤지, 정원 소품 디스플레이 등 현재 정원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꽃의 식물들은 정원의 품격을 차별화 시킵니다.

시공사례



벽화수주식회사

031)634-0326
www.uriseed.com



January

ARDEN

2014 가든인

1

가든 속으로 줌 렌즈를 들이대며 다가가면
가든 안의 모든 이야기를 적어가는 가든인 잡지입니다.

Garden In 안의 사람들이 펼치는 이야기거리
Garden In 속의 농축된 역사이야기
Garden In 속으로 빠져드는 재미이야기
Garden In 안으로의 정원문화 이야기
Garden In 안의 식물 이야기
Garden In 안의 디자인 이야기 등등

Snowdrop



많은 흐름이 엉키고 이야기된 줌 속의 이야기

가든인 정원속 사람이야기
가든인 사람들의 생활패턴
가든인 사람들의 식물 응용 이야기
가든인 사람들의 먹거리
가든인 사람들의 체험이야기로



Outdoor Garden

- 6 2014년 발행인 신년사
- 8 발행인의 글
- 10 Cover story
- 16 천리포 수목원의 겨울정원
- 22 이달의 식물소개
- 24 세계 속 한국인의 나무, 구상나무
- 26 정원식물 속 훑쳐보기



Indoor Garden

- 30 한가한 1월 휴식의 계절
- 34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 38 병해충의 겨울나기
- 40 테라리움
- 44 가재발산인장
- 46 꽃바구니를 활용한 바스켓 가든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 48 도시농업의 재발견 귀농과 교육
- 52 가드닝, 자연과 교감하는 통로
- 56 귀농의 전원생활 적합도 테스트
- 60 다이어트에 인기 있는 고구마
- 64 원평 허브농원의 도시농업
- 68 서울 도심 속 재미난 텃밭투어
- 70 글로벌 에코리더란?
- 72 귀농을 넘어 농산물 큐레이터에 도전



Garden Design & Story

- 74 정원의 이름까지 색 초화류
- 78 호주건조지역식물원
- 82 어린 몸으로 봄을 불러오는 바람꽃
- 84 White Garden, Sissinghurst



Gardening Information

- 86 한국정원문화협회기사
- 88 충남 국립생태원 개관소식
- 90 한국원예저재정보
- 91 냉한기 1월 정원준비
- 92 오색채소의 매력 알아보기
- 96 FOOD
- 98 BOOKS
- 100 가든조아 2014년 신상품 선물세트

1
January
2014

감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든인 모두 행복했으면 합니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마음에 와 닿는 그리고 스스로 만족된 가든인의 삶이 영위되기를 희망하며 기원합니다.

가든인은 정원의 크기나 정원에 투자된 비용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것을 생활 속에서 청정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때 혹은 작지만 우리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또 속아주기도 하고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는 일, 모두 즐겁고 아름다우면 됩니다. 정원은 우리의 아들, 딸과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 우리의 딸,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사랑의 손길과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정원문화를 영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정원문화는 자연에 방점을 찍는 문화입니다. 자연을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정자를 지어 가장 아름다운 산수풍경을 완성하고 누렸습니 다. 그리고 작은 초가집도 투박하지만 작은 창문을 두어 장독대의 잘 익어가는 고추장을 상상할 수 있게 혹은 뒤견의 돌 축대를 비집고 나온 고사뒹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창호에 그리는 잘 익은 감나무의 아름다움을 풍요로운 가을밤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계유일의 궁궐 안으로 산을, 자연을 들여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을 밤, 달은 아파트의 꼭대기에 걸려 있고 올려다보아야 탑스러운 감나무는 내 발밑 까마득하게 아주 애소합니다. 자연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근대화의 과정은 주거와 삶의 터전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곳엔 우리의 정원이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주거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시점에 정원문화의 변화는 좀 더 늦었던 겁니다. 간혹 문화는 수면으로 가라 앉았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문화란 뜻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문명이란 단어를 단어적 의미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 지지만 문화는 좀

새로운 정원문화 창조와 독자들의 행복과 자존감을 위한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 되고 문명은 좀 더 물질 적인 부분이 강조 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마야문명, 황화문명과 같이 물질적 풍요로움이 더 강조될 때 이용하는 말과 정원문화, 김장문화, 정자문화, 음주문화 등 예절이나 풍습 등 정신적 부분이 강조되는 의미에 부여하는 것이 문화라는 말로 표현 됩니다.

따라서 정원을 문화로 표현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고 누리는 행복감이 정신적인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좀 뒤쳐졌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정원 문화는 싹 트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감각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던 자연과 정원과의 재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공감대 혹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정원문화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새로운 정원 혹은 가든 문화를 형성할 것이냐는 데 있습니다.

이미 의식주가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그 일상의 문화적 변형과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치"의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문화의 변화는 변화하지 않는 가치의 기준에서 보면 삶의 모습이고, 삶의 가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자존감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원문화는 행복감,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농촌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행복감에서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가끔 전통과 외래문화에 대한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외래문화를 우리에 맞게 변형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융성의 가치를 세워 국정철학의 3대과제로도 설정했습니다.



가든인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원도 혹은 가든도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전통이 되었던 도입된 문화이던 간에 우리의 현재 삶의 방식대로 재창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는 자존감 회복이 관건입니다. 선진 외국의 정원문화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정원문화를 무시하지 않았을 합니다. 모방을 하고 혹은 새롭게 독창을 하던 간에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든인은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정원문화 창조와 독자들의 행복과 자존감을 위한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매쟁이를 약간 낮추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매는 잘하면 옷이 한 벌이요 못하면 뽕이 세대" 라 했습니다. 독자 들이 주는 기쁨의 옷도 받고 가끔 뽕도 맞겠습니다. 가든인이 독자여러분의 정원과 가든의 중매쟁이가 되겠습니다.

정원이나 가든 이라는 훌륭한 아들, 딸들의 신상명세를 가든인에 모아주시시오, 새로운 정원문화를 창조하는 행복감과 자존감을 우리의 가든 안에서 누리십시오.

말의 해!
여러분이 다크호스입니다.
승리 하십시오.

백화수(주) 대표이사 박 공 영



가을 숲에서 부르는 내 영혼의 노래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한 해의 저물어 가는 가을 뒷녘 오후,
서녘 해 기우는 서산 위 잿빛 하늘,
멀리 흩어져 흐르는 황혼 빛,
건너편 작은 숲 그늘 아래 높이 서 있는 성당의 종탑,
보이지 않는 바람 깃에 열게 흔드는 일새 진 빈 나뭇가지,
한잎 두잎 적셔진 늦가을의 외로운 마즈막 주홍빛 여운들이
아쉬움에 사라져간다. 아름답게 멀어져간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종탑의 만종소리에 젖어 그날의 황혼젖은 시간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꼭 나셔야 할 발길이 아니었던 고향을 향한 발길,
서편으로 흘러가는 차 안의 작은 공간속에서
고요에 젖어가는 나의 뒷모습을 바라다보는 세월이라는 지나간 시간들
은 그렇게 보고있겠지.
황혼 깃 인생이라는 길
지난 어느 해 늦가을 저녁길, 달리는 행로에 마주한 차 창밖의 나의 사념
은 그렇게 나의 영혼을 잔재워주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흩어져가는 기억들 하나를 붙잡고 새롭게 바라다보이
는 곱게 물들어가는 황혼 빛 하늘아래 나의 늦가을 고독의 사념은 보이지
않는 바람깃 사이 일새 진 자작나무의 작은 가지들 사이에 걸쳐진 황
혼 빛 노을을 보며 흩어져가는 일새들 같은 마음조각들을 주워 모아 부
른 내 마음의 노래, 나는 그렇게 가을의 영혼을 달래주는 내 영혼의 노
래를 부르고 싶었다.
나는 그렇게 내 철없이 저물어가는 내 영혼을 달래주는 가을의 영혼을 노
래하고 싶었던 내 가슴에 새겨가는 아쉬움의 그림자를 한달 한달 되뇌어
보는 일새 저간 나목의 숲에, 그 가을 숲에 나의 곤한 정적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마음 깃을 불러보았다.

이렇듯 철없는 나의 시정은 인생의 고뇌도 없이, 사물의 철학도 없이, 관조의 세전도
없이 그저 무모한 감성으로 그저 내 영혼의 소리는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하기에
나는 항상 내가 자신의 영혼에 부끄러운 큰 빚을 지고 토해내는가 보다.

파랗파랗 돌아나는 물 젖은 보드라운 연녹빛 봄숲에서도, 왕성한 햇볕 머금고 두터
워져가는 생명의 몸짓 활개 녹색제왕 여름숲에서도, 오색이 찬란한 미묘한 아름다
움의 가을숲에서도, 흰 눈 두터이 덮인 저 먼 겨울산의 냉정한 숲에서도, 내 사념의
들넋은 아름다운 방향에 젖어가지만 가을 숲의 고요함에 젖은 내 영혼은 낙엽 진 숲
속 오솔길을 밟아 갈 때 나는 그리움 같은 시정에 젖길 한발짝 더 앞서기에 그렇게
하얀 내 가슴에 수를 놓는다.

영혼은 끝없이 흐르고 지나는 것, 그러나 그 영혼은 잠시 머물다 순간의 시간 뒤로
멀어져가는 것,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만나는 자신의 사념의 발에서 별처럼 아름다
운 영혼의 주옥을 만나게 되는 우연이라는 아름다운 행복과 경이로운 기쁨을 새기
게 된다.

시란 누가 말했듯 내 마음을 노래하는 것, 마음의 소리를 노래하는 것, 보이지도 들
리지도 않는 모습과 소리들을 가슴으로 토해내는 것, 이 세상 모든 있음과 없음의 대
상을 찾아 내 사념의 그림을 그려놓는 것, 무한의 마음을 방황하듯 헤매며 찰라의
순간에 머물러 만나는 감성의 그 하나를 붙잡고 애걸하는 자신의 애절한 영감인 것.
익! 하는 소리도 아~~~ 하는 감탄과 탄성도, 흑흑대는 슬픔도, 통곡도, 말없이 소리
없이 흘러우는 애절함도, 보이지 않는 모습과 머물지 않는 향기에도, 나의 멈춤대는 마
음의 발길들은 사념의 높이로 빠져드는 것, 그것이 시정이라 하는 걸까?
그렇게 자연주의자들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그들의 노래가 영원한 아
름다움으로 전해오는 것 아닌가.

감히 자연의 아름다운 신묘함을 함부로 내 놓을 수 없는 마음과 표현이지만 나 또한
가을숲가 일새 진 나무결을 바라다보는 자연 속에 묻혀가는 짧막한 내 인생의 시간
속을 바라다보면서 그 날도 나의 값 없이 지나는 어리석은 사념의 씨앗들을 내 놓았
던 부끄러운 기억을 소개해보았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아직도 어제도 현재도, 내일에도 멀리떠나가는 그 기억들을 더듬어
보는 잔여가는 가을 황혼 빛 서녘 하늘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그냥 나있던 고향길 찾
던 나그네의 발길에서 만난 일새 진 자작나무의 빈 가지에 걸려진 아름다운 영혼을
깨워낸 나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돌아보며 마음에 미소를 짓는다. 눈 내린 창밖 프락
적울 정원의 외로운 나그네 같은 한 폭의 자작나무에 머문 고독한 외로운 겨울을 바
라다보며 고향 산 그늘 일새 진 작은 겨울 숲길을 그리며 오늘도 소리없는 내 영혼
의 노래를 불러본다.



나목의 숲에서

하루를 두고 가는 아쉬움
서산가로 다가가는 이별
거기 지는 저녁해를 바라다본다

그림같은 명석해가 걸쳐진
하늘과 산자락 그 모두가
그 얼굴에 취한 온통 황혼빛 노을...

노을에 젖은 하루의 안식
저가는 하늘 보며 노을을 보며
하루에 여울을 짓는다

종탑위 노을은 홍비단
늦겨울 접어가는 산노을이 된다
가는길 따라 나절수 없는 시간
점점 멀어져가는 황혼은
검붉은 하늘이 된다
스며오는 시간을 안내한다

나목의 숲에
저가는 노을이 아름다워
떠나가는 황혼이 아름다워

멀어져가는 시간이 안타까워
그의 뒷모습을 바라다본다

나목의 숲에서...



설강화 Galanthus nivalis, snowdrop or common snowdrop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산책을 하며 누리는

하얀정원 Snowdrop

글 이명

깊은 시름도 정원과 대화하며 희망의 시간을 갖는 곳이라 사랑하며 즐기는 공간입니다. 겨울이 오면 외면도 있을 수 있으나 뜨거운 커피 한잔을 들고 이곳 저곳을 걸으며 대화할 상대를 찾아 발걸음을 멈춥니다.

세상의 시간은 빠르게 우리를 지배하지만 정원의 시간은 자연과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항상 준비해두어 즐기는 기쁨의 시간도 여유로움도 두 배로 즐겁습니다. 언제나 나와 단들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정원의 공간. 침묵이 흐를수록 소리는 없지만 자연과 주고 받는 대화는 평생의 전인 교육장. 사람들과 미주하며 정원에서 나누는 기쁨도 많지만, 이른 아침 이슬과 함께 자체를 뿜내는 정원의 식물들, 그리고 이중의 하모니를 자아내는 진디 위에 그림을 그리듯, 소나무의 짙은 초록의 그림자 영상미는 또

다른 자연의 예술미를 자아냅니다. 정원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각자의 영상미를 맡기며, 내가 거닐던 이국 땅에서의 하얀 백색의 작은 식물이 제 눈에서 잊혀지지 않고 겨울정원에서 만난 신비함의 기억이 이른 봄의 희망을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길목에 서면 1월에 소개하며 작은 행복을 나누고 싶은 식물, snowdrop 자연의 군집을 이루는 식물, 눈 덮인 나뭇잎 사이로 새로운 호기심을 자아낸 첫 만남. 흰 눈 속 여린 녹색 사이로 흰 꽃 인지 눈꽃인지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갑니다.

제가 겨울 정원으로도 즐겨 산책하던 곳, 겨울이면, 노랑, 빨강색으로 물든 말채나무(orange & red Dogwood) 가지의 모습에서도 색을 즐기는 정원, 너무 넓은 정원의 산책 길에 오래된

Snowdrop



G. nivalis f. pleniflorus "Flore pleno"



Galanthus elwesii.



G. woronowii



동상들이 커다란 나무들의 행열 사이에 자리잡고 있음이, 정원을 산책하는 사람을 마중하며 반기듯 곳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로 서있는 모습은, 영화속 장면을 보는듯한 자연의 하모니를 갖춘 정원 속에서, 음악도 흐르듯 변화하는 계절의 소리가 나뭇잎과 눈 덮인 초록의 잔디 사이로 봄의 소리를 전하느라 많은 소리들이 힘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봄을 준비하느라 바쁜 리듬의 소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멀리 초콜릿 색으로 변화된 담장을 갖춘 The Circle Temple 광장(조각품과 자연이 융합된 자연미가 재 창조된 곳)과 자연은 이곳의 아름다움 중 으뜸. Anglesey Abbey(Cambridgeshire 지역, UK)정원의 강둑을 걸으며 아름다움에 매료되며 겨울정원과 그곳에서 만난 흰색의 작은 눈꽃, Snowdrop을 새해 아침에 소개하며, Anglesey Abbey 정원은 후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alanthus nivalis, snowdrop or common snowdrop



Snowdrop

SNOWDROP (학명 *Galanthus*)

라틴어 Gala(milk)+Anthus(flower)의 합성어.

눈꽃, 설강화, 1월의 탄생화 의미.

꽃말 : 희망, 반가운 소식

2014년, 탄생의 의미를 알리는 작은 흰색꽃.

(높이10~15cm), snowdrop (예명 : 눈꽃)와 동유럽국가에서는 1월1일을 알리는 눈꽃 혹은 탄생화라고도 부르는 Snowdrop 'Galanthus nivalis' 으로 정원속에 희망이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개화시기는 3월~4월 꽃을 즐기며, Snowdrop 은 복수초와 함께 가장 일찍 숲에서 만나는 구근류로 약 20여종의 Galanthus 종이 학술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구근시장에서는 수십 종의 variety가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연 숲 생태계에서 자생하며 군집으로 번식하여 갑니다. 한국의 천리포 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의 군집을 이룬 곳으로 유명하며 총 7,000여종(국내종 1,000여종, 외국종 6,000여종 보유식물) 중 snowdrop도 보유한 소식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천리포 수목 원에 보유한 snowdrop의 식물은5종으로, G. caucasicus, G. elwesii, G. nivalis, G. nivalis for. pleniflorus 'Flore Pleno' G. woronowii 등이 확인되었다.



Snowdrop

그리고 많은 종류의 snowdrop variety들이 매년 소개되며, 신품종의 snowdrop 은 마니아들의 노력으로 시장에 소개되고 있으며,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는 아래의 다양한 종류의 snowdrop 식물들을 소개하며 1월에 희망의 메시지를 심고 시작하는 snowdrop 의 하얀꽃 세계로 안내하며, 모든 독자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 소개 드립니다. 겨울날 숲 속에서 만날 하얀 눈꽃. 작지만 '희망의 기쁨'을 누리는 산책길을 나서며 정원에서 만날 snowdrop친구들을 기대하여 봅니다. 예전에 Snowdrop을 정원에서 만나며 snowdrop과 만나는 기쁨을 적어나간 글귀를 소개하며, 모두가 '희망'을 품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nowdrop의 variety의 종류들

- Galanthus, nivalis-scharlockii-cresson
- Galanthus, mighty-atom
- Galanthus, elwesii
- Galanthus, plicatus-wendys
- Galanthus, plicatus-wendys-gold
- Galanthus, reginae olgae with skimmia reevesiana
- Galanthus, plicatus wendys gold
- Galanthus, nivalis scharlockii
- Galanthus, hippolyta
- Galanthus, mighty atom
- Galanthus, Merlinhelia
- Galanthus, Ophelia-double flower
- Galanthus, Potters prelude(9월 개화식물)
- Galanthus, Blewbury Tart
- Galanthus, Magnet
- Galanthus, Beth Chatto-(Beth Chatto garden)



너와의 동행 Snowdrop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옛 기억, 추억들
세상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나만의 꿈속에서
너와의 동행

산책의 길목에
의심도 필요치 않고
하얀 눈 속 위의 첫만남
호기심을 자아내고
흰색과 연녹색의 환희로
너와의 동행

얼음 위의 하얀 꽃
모두가 함께 모여
겸손히 고개 숙인 모습
길 찾아 헤매던
밝은 빛 찾아
너와의 동행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을 나눈 듯
얼음 속 속삭이는 소리
행복한 희망의 메시지로
너와의 동행

귀한 친구 매주 만나
반가움과 희망을 나누며
귀한 모습의
마음을 보여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너와의 동행



비워서 더 아름다운 천리포 수목원의

겨울정원

글·사진 천리포수목원 최수진 홍보팀장

늘 채우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비워서 아름다운 겨울 정원이 있다고 표현한다면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로만 들릴지 모르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수목원에 들어왔으니 나무들은 풍성한 잎사귀를 한 가득 달고 곱고 화려한 꽃들은 만발해야 사진 찍을 기분도 나고,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끄럽지만 필자도 천리포수목원이란 곳에 근무하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수목원에서 계절에 따라 풀과 나무가 어디서부터 태어나고 자라며, 얼마만큼



히에말리스동백 (상소네트)

깊어지고 푸르러지며, 또 어떻게 사그라드는지의 일련의 과정을 익혀가면서 정원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그러한 과정은 계속되고 있기에 필자의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겨울 정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천리포수목원의 겨울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한다.

자연 그대로의 겨울

故 민병갈(Carl Ferris Miller, 1921~2002)박사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1945년 2차 대전 종전 직후 미군 해군 선발대 정보장교로 한국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자연에 순응하며 꾸밈없이 살아가는 순박한 한국인과 야트막한 야산과 적당히 높은 산이 어우러진 대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계절의 조화가 아름다운 한국의 매력에 빠져 군 제대 이후 한국생활을 시작하여 57년간 한국에서 살며 수목원을 일군다. 식물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문외한으로 시작하여 피나는 노력 끝에 노년에는 학자 이상의 지식을 쌓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기에 그를 박사로 칭하고 있다.

1970년부터 혈벳은 태안반도 천리포에 어린 나무와 씨앗을 심으며 수목원 조성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은 그가 만든 곳이 바로 천리포수목원이다.故민병갈 박사는 인간이 만드는 자연 동산이지만 자연에 인간의 손길이 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 곳, 풀과 나무들이 자연의 섭리대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한 곳을 만들고자 했다.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수목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숨결이 깃든 천리포수목원에는 전지가위로 반듯하게 모양을 낸 나무, 온갖 형상을 연출하는 분재가 없다. 그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그의 철학과 뜻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천리포수목원의 겨울은 우리나라 식물원·수목원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 그대로의 정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천리포수목원의 겨울 정원은 꽃과 잎으로 가려온 나무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봄부터 가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나무들의 수려하고 관능적인 몸매가 직설적이게 드러나기도 하고, 화려한 색채에 현혹되어 눈에 들어오지 않던 줄기와 볼륨이 도드라지기 시작한다. 여름에 화려한 햇빛을 피워 낸 수국은 꽃형체 그대로 정원에 남아 드라이플라워가 되었다. 겨울 정원 곳



(상) 남매
(하) 메디아폴넛천 (리운드우드)

(상) 예조연스 서향
(하) 설중 뱀나무



독일가문비나무Picea abies(Nediformis)



곳에서 알록 달록 은색과 노란색 줄기를 뿜내는 말채나무들은 언제 이들이 이곳에 있었는지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돌연 겨울정원의 히든카드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실 우리가 보기엔 갑작스럽지만 식물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결과이니,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나무들의 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것 역시 겨울 정원이다. 풀설에 가려져 웅크리고 있는 낙우송의 기근(氣根, 지상으로 솟아 오른 뿌리)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도 겨울 만한 계절이 없다. 이토록 나무들이 비워내고 난 자리에서 우리는 다소 생경하기도 하고, 다소 외설적이기까지 한 나무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일전에 수목원을 찾은 한 지인은 겨울 정원을 두고 민낯의 여인 같다는 표현을 했다. 화장을 두껍게 하여 얼굴을 덮은 화장미인, 인위적으로 찌고 만들어 붙인 성형미인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순수하지 않으니, 접이나 잔주름이 그대로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민낯의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미인이 아니겠냐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 그러고 보니 겨울 정원은 꼭 순수한 미인 같은 느낌이다.



저진낙상홍

호랑가시나무의 계절

천리포수목원은 지금이야 70~80년대 식재한 나무가 장성해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있지만, 조성 초기만 해도 거친 해안 민둥산에 어리고 어린 나무들을 키우다 보니, 어렵게 구해 심은 나무들이 제대로 싹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천리포수목원이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따뜻해 남부 지방의 대표적 수종들이 잘 자라고 적응할 수 있어 30cm 만 파도 염분기 있는 모래가 나오는 땅에 퇴비를 주고 흙을 바꾸어 상토를 만들어 가며 나무들을 가꿔나갔다. 당시 민병갈 박사가 주력해서 키운 대표 나무 중 하나가 호랑가시나무이다. 현재 천리포수목원에는 열매가 노란색인 것부터 잎에 무늬가 있는 것 등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약 370여 원예품종의 호랑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겨울이야말로 각양각색의 호랑가시나무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천리포수목원에서는 1998년 미국호랑가시학회 총회가 개최되었고, 학회로부터 호랑가시수목원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당시까지 미국 호랑가시학회가 타국에 인증을 한 사례는 프랑스 뿐이었다고 하니 천리포수목원의 호랑가시나무가 얼마나 우수한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호랑가시나무





서리꽃 내린 겨울식물들



호랑가시나무는 윤기나는 선명한 녹색 잎과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붉은 빛을 뽐내며 조랑조랑 달리는 열매가 대조를 이뤄 흰 눈이라도 내려앉으면 선명한 색채가 더 빛을 발해 눈부신 광경을 펼쳐놓는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는 새들에게는 소중한 먹이가 되어 다양한 새들을 수목원으로 불러 모은다. 수목원을 방문한 많은 분들이 스피커를 통해 새소리가 전해진다고 착각할 정도이니 그 위력이 대단하다. 육중한 잎들과 눈부신 꽃들이 만발한 계절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새소리가 비워진 정원에 울려 퍼지니 맑고 깨끗하다. 덕분에 춥다고 겉걸음으로 바쁘게 수목원을 거닐지 않고 자연스레 리듬감 있는 발걸음으로 겨울 산책을 느긋이 즐기게 된다.

보석같은 꽃들의 조우

천리포수목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물종을 보유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한겨울에도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겨울식물을 꽤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난해 11월, 12월 부터 꽃을 피운 히에말리스동백 '샹소네트', 다를레이엔시스 에리카 '아사 존슨', 낙지뿔관 모양으로 긴 꽃줄기에 황금색 꽃을 매단 메디아플람넨 '라운드우드', 상서로운 향기를 내뿜는 남매와 서향 그리고 풍년화, 설강화에 이르기까지 수목원 곳곳에서 보석같은 꽃을 피워 긴 겨울을 위로해 줄 식물들을 종종 만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겨울 정원이 어디에 있을까? 단, 겨울 정원에서 이러한 꽃을 찾기 위해서는 눈과 코, 귀를 열고 자연을 향해 좀 더 몸을 낮춰 가까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겨울정원의 감동 아이템 설정

마지막으로 천리포수목원의 겨울 정원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라야 할 듯싶다. 겨울정원에서 설경이야 말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아이템이지만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면서 녹기 시작하기에 눈꽃이 피는 풍광을 감상하는 것은 직원들에게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아주 짧은 찰나이다. 눈 예보를 기다렸다 수목원에 방문하지 않고서는 한 두 번의 겨울 방문으로는 천리포수목원의 설경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그래서 겨울에 수목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목원 내부에 있는 한옥이나 초가집과 같은 힐링하우스나 에코힐링센터(숙박시설)을 예약하고 눈을 기다리는 분들도 제법 있다.

시인 타고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 고 말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진정 현명한 사람은 겨울 정원을 간다고 말하고 싶다.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듯 계절이 끝난 것 같은 겨울정원에서 생명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채워지니 이를 느낄 수 있는 겨울 정원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사람이 가는 곳이지 않겠는가? 겨울 정원에서 자연 그대로의 나무와 풀을 만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진실되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바로 겨울정원을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다를레이엔시스



다양한 수피

천리포수목원

2009년 3월 1일 일반인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후원회원과 식물 전공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비공개 수목원이었다. 현재 현재 17만평의 7개 구역으로 나뉜 수목원에서 2만여평의 밀려가든과 에코힐링센터 일부만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Tel. 041-672-9982
www.chollipo.org



hebe blue gem



이달의 식물소개 Hebe 헤베

실내정원에서 다양한 꽃을 선사하며, 개화후 싱그러운 잎의 향연에 빠져드는 강한 매력의 Hebe. 그리고 사계절 기간 다양하게 색상을 선사하는 다양 품종의 향연도 애호가들에게 사랑 받는 Hebe.

꽃의 종류도 다양하여 접시모양의 꽃에서 아름다운 유용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식물이다. 옥외에 심는다면 강한 디자인의 요소를 포함하며 관목이나 주변의 수목들과 조화를 이루는 Hebe를 만나며 봄을 기다린다.

Hebespecies의 식별은 어려운데 특히 꽃이 피어있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 Hebe의 식물크기는 작은 나무 난쟁이 관목에서 7 미터까지 범위의 크기이고 해안주변에서 분포된다.

우리나라 태안반도 가까이 천리포 수목원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목원종 Hebe traversii 로 Hebe의 수종을 보유하고 있다.

큰 잎이 달린 Hebe 종은 해안가에서 일반적으로 바람벽을 이용한 식재로 많이 사용하며, 높은 고도에서는 작은 잎이 달린 Hebe종이 성장한다. 그리고 고산 지역에서는 잎이 두꺼운 비늘 모양의 Hebe종이 형성된다. Hebes는 많



hebe albicans



hebe red edge

은 정원과 공공 장소에서 식재되며 있으며, Hebe는 나비를 유지하는 버틀리아종 처럼 나비를 군집으로 이끄는 관목의 수종이다. Hebes 대부분의 토양 유형을 대처하며 씨앗 및 삽목으로 쉽게 번식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야생 Hebe 종은 일반적 번식이나, 많은 재배용 Hebe종과 같은 asHebe×franciscana 도 있습니다. 잎이 나는 방식 가운데 '마주나기 방식'90도는, 마주나기 한 쌍의 잎이 나오고 그 위에서 다시 한 쌍의 잎이 날 때에는 정확히 90도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식인데, Hebe의 정교한 잎의 매력은 마주나기 90도 방식에서 반복되는 기하학적 모습을 보며 매력을 느끼고, 섬세한 잎의 모양이 특이하고 사계절 잎과 꽃이 주는 싱성한 모습에 반하게 된다.

Hebe는 온대성 기후의 정원에 식재되며 잎을 가진 상록 관목으로 꽃도 피우는 특색이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꽃으로 파랑,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흰색으로 여름을 걸쳐 나타난다. 소금기의 해안바람을 견딜 수 있으며 해안지역에서는 바람을 막는 관목으로 식재도 이용된다. 일부는 주로 half-hardy, 그래서 장기간의 동계 온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번식이 어려운 것도 있으며 키가 낮은 종은 groundcover로 사용할 수 있다. Hebe의 많은 종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나기를 바라며, 우리꽃 농원에서도 내한성이 강한 Hebe의 신 품종이 많이 출원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우리꽃 농원의 현재 신품종 출원 보유와 11종의 해외 로열티 수출품목은 대한민국에서 1위로 2013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을 이학박사 박공영 대표가 수상 하였습니다. 창조경제로 6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많지만 조정과 원에 부문에서도 한국인의 위상이 계속되도록 가든인 잡지를 통하여 신품종의 소개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달의 식물소개나 신품종 소개의 기사도 기다립니다. (가든인 편집부)

학 명 HEBE 분류, 쌍떡잎 식물, 질경이목 질경이과 (Plantaginaceae 현삼과) 관목
분 포 뉴질랜드 채텀섬 원산지, 약 70~80종
서 식 해안가주변 이나 열대의 산악지대
크 기 높이 20~50cm 부터 7미터까지
특 징 Hebe는 뉴질랜드 원산지
관 리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
물주기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꽃 말 영원한 청춘, 순백의 아름다움 (HEBE는 그리스신화의 '청춘의 여신')



Hebe

정원에 꽃을 심을 것인가? 나무를 심을 것인가?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봄도 쉽고, 꽃도 피고, 유지 관리도 쉬우며, 언제나 싱성한 모습의 식물. 낮은 키의 관목이며 꽃도 피우니 도시의 실내정원 애호가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식물 애호가들에게 안성맞춤인 식물 Hebe를 소개한다.

세계속 한국인의 나무, 구상나무

글 여미지식물원 제공

구상나무를 빼놓고는 제주도의 식물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한라산 꼭대기에서 자라는 그 고귀한 기상도 높지만, 피라미드 형태의 반듯한 수형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신비롭게 솟아오른 열매들을 달고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은 경외를 기만 하다. 이 기품 있는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신비로운 분포

원래 러시아 극동 지역 등 아주 추운 고산 기슭에 자라는 구상나무가 우리나라 따뜻한 남쪽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된 것은 어찌된 일일까?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에 지구의 대지가 움직여 이렇게 아름다운 섬과 신비로운 오름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귀한 식물들이 한라산에 모여 자라게 되었을까? 구상나무는 전나무속에 속하는데 이 같은 식물들 중에서 제주도와 같은 동북아시아 최남단의 섬에 격리되어 분포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거의 세계적으로 드문 일인 것이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나무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광대한 면적의 순수한 숲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



Abies koreana 'Ice breaker'

Abies kore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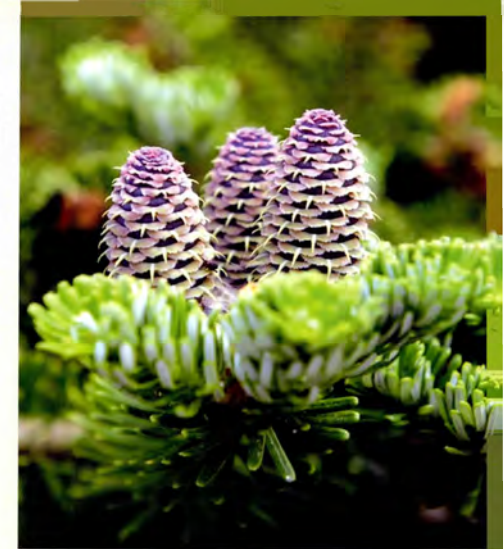


세상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다

구상나무는 프랑스로부터 해외 파견 선교사로 한국에 온 포리 신부에 의해 1907년 처음 제주도 한라산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 타케노신은 1913년 제주도식물조사보고서에서 구상나무가 분비나무와 동일하다고 보고하였다.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생김새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인데, 그 후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어니스트 월슨이 1920년 구상나무를 분비나무와 다른 신종으로 발표하였다. 월슨에 의해 미국과 유럽에 알려지면서, 구상나무는 곧 정원수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경제성 높은 상품으로 개량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월슨을 비롯한 당시 서양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식물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지만, 우리나라 식물들을 외국으로 반출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식물의 가치를 알고 그만큼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큰 것이다. 오늘날에도 외국의 식물원들은 세계 여러나라의 식물을 수집하여 자신들의 정원에서 귀하게 가꾸고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하여 재배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다양하고도 세계적으로 가치 높은 식물들은 대부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색깔 있는 나무

곧은 줄기로 아름다운 수형으로 자라는 구상나무는 열매의 색깔도 가지가지다. 원래 구상나무의 열매는 자줏빛 또는 보랏빛을 띠는데 이와 다르게 검은색, 붉은색, 푸른색을 띠는 구상나무가 있다. 지금까지 모두 5개 품종과 9개 재배품종이 알려져 있다. 구상나무는 한라산에서 해발 1,200미터부터 드물게 분포하기 시작하여 1,300미터부터 숲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한라산 외에도 지리산과 덕유산, 무등산에도 분포한다. 제주에서 구상나무는 성계를 뜻하는 '쿠살'과 나무를 뜻하는 '낭'을 합쳐 쿠살낭으로 불렀는데, 구상나무의 잎이 성계 가시처럼 생겨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 구상나무는 제주의 전통 떡목인 테우(테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가든인 2014년 2월호 식물원 소개

여미지 식물원 예정
여미지 식물원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484-1번지
Tel : 064-735-1100
(개장시간: 09:00-18:00)



정원, 속 보이네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 식물 속 흠쳐보기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물의 이름을 잘 모른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든인이라 할 수 있을까?

모든 식물은 이름이 있다. 예를 들어 구절초 종류를 보면 구절초도 있고 분홍구절초도 있고 한라구절초도 있으며 백두산에 나는 바위구절초도 있다. 그리고 포천에 나는 포천구절초도 있다.

앞에 어떤 접두사가 붙었던지 상관없이 “구절초”라는 대표 이름이 있다. 이 대표 이름을 우리는 속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이름을 종명이라 하고 이 종명이 바로 식물의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처럼 한글식 표현을 쓰지 않는 중국

이나 일본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엔 구절초가 있을까? 있다. 중국에서는 조선국(朝鮮菊) 혹은 찰씨국(察氏菊)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시베리아노기크(シベリアノギク, 시베리아들국화)라고도 영어로는 Siberian chrysanthemum(시베리안 크리스산 세덤)이라 한다.

아니 이름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소통이 될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공통의 이름을 정한 것이 있다. 바로 학명이다. 학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하나의 식물에 오직 하나만 부여되는 총칭(common names)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총칭은 식물을 처음 채집한 사람의 이름이나

그 식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부터 참고하여 지어진다. 예를 들면 일본의 ‘나카이’라는 학자가 우리나라의 별개미취를 처음으로 국제적인 이름을 명명 하였는데 별개미취는 학명이 *Aster koraiensis* Nakai라고 되어 있고 이때 *Aster*는 “별같이 생긴 꽃”을 뜻하고 *koraiensis*는 “한국에서 나는” Nakai는 “최초로 식물을 국제학회에 보고 명명한 사람”을 뜻한다. 이렇듯 세계적인 규약에 의한 식물 분류의 기본적인 단위는 종이며 이명법(binomial)으로 표기한다.

이때 종의 하위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종의 변형 형태를 아종, 변종 또는 품종들은 순서대로 “subs.”, “var.”, “f.” 또는 “for.”라는 접두사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인위적으로 선택된 재배품종들은 육성자들이 토착어로 이름을 지어 종 이름 뒤 작은따옴표 안에 표기한다. *Coreopsis rosea* ‘Coreuri miri’(우리꽃에서 개발하여 유럽, 호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코레우리 미리’)와 같은 예이다.

어떤 재배품종들은 정식 명칭 대신에 통상적으로 쓰이는 별칭으로 기재되기도 한다. 성에 의한(sexual) 교배는 곱셈 기호로 나타내어지고(예를 들어 우리꽃에서 개발되어 국내 최초로 유럽에서 로열티를 받고 팔리고 있는 상록잔디패랭이; *Dianthus x* ‘Evergreen Emerald’), 접목에 의한 품종은 덧셈 기호로 나타내어진다(금사슬나무와 골담초를 교배하여 얻어진 품종을 접붙인 식물+*Laburnocytisus* ‘Adamii’).



식물들의 학명이 바뀌기도 하는데, 주로 새로운 연구조사로 지난날의 착오 또는 오래전에 앞서 지어진 이름을 발견하거나 식물 그룹이 재분류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대체되는 이름은 동의어가 된다. 이때는 보통 “()” 안에 변경전의 이름을 표기해 주기도 한다. 이것은 이전의 연구와 또는 서로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우리는 보통 식물들 ‘계’, ‘문’, ‘강’, ‘목’, ‘과’, ‘속’, ‘종’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맨 아래 종이 가장 작은 단위의 분류체계이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유연관계에 있는 그룹으로 묶을 때는 보통 ‘국화과’, ‘화본과’, ‘백합과’와 같이 통상 ‘과’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들 군집의 특징들을 약하게 내포하고 있다.

1) 과(科, Family)

근본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속들의 집단.과의 이름은 보통 -aceae로 끝난다.과의 구분과 제한에 있어서 논란이 많고 불분명하여 학자들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때문에 과는 보통 생김새 혹은 기본 특징을 묶는 그룹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2) 속(屬, Genus)

넓은 범위에 걸쳐 특징을 공유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식물들의 집단. 이름은 첫 글자가 대문자인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교배종은 속 앞에 곱셈기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속의 식물들은 서로 교배가 가능하고 자손을 퍼뜨릴 수 있다.

3) 종(種, Species)

자신과 닮은 자손을 발생시키기 위해 함께 번식이 가능한 식물들의 집단. 종은 이름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며(이명법),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첫 부분은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이고 이것이 속(屬) 이름이다. 뒷부분은 같은 속이지만 구분하기 위하여 종

속명이 쓰이고 첫 글자는 소문자로 쓰인다. 이 종속명이 보통 하나의 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명법은 속명+종명+명명자의 형태가 되고 보통 명명자의 이름도 로마체의 대문자로 붙여주는 것이 기본이나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4) 아종(亞種, Subspecies)

식물의 종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종의 독특한 변형 형태이며, 보통 격리지역이나 집단의 변형으로 돌연변이체와는 다른 개념이다. 로마체의 “subs.” 뒤에 이탤릭체로 형용어를 써서 그 차이를 표기한다.

5) 변종(變種, varietas) 과 품종(品種, forma)

종이 작게 세분화 된 것으로 식물학적 구조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로마체의 “var.” 또는 “f.” 뒤에 이탤릭체로 변종명 혹은 품종명을 써서 원래의 종과는 구별되게 별도의 이름을 표기한다.

6) 재배품종

종, 아종, 변종, 품종, 혹은 교배종의 독특한 변형 형태로 선택되거나 인위적으로 길러진다. ‘’ 표 안에 토착어(보통 개발자 혹은 상품명)를 로마체로 써서 표기한다. 예를 들면 *Coreopsis*

rosea ‘Coreuri Miri’ (우리꽃에서 개발한 분홍색 꽃이 피는 금계국속 품종, 코레우리 ‘미리’)가 있고, 만약 계통(혈통)이 모호하고 복잡할 경우, 속명 바로 뒤에 토착어 이름을 쓴다. 예를 들면 *Sedum* ‘Baekdoo’ (우리꽃에서 백두산에서 포획하는 형질의 기린초를 수집 선발하여

품종 등록한 ‘백두산 애기기린초’) 등이 있다. 이때 품종 명은 이탤릭으로 쓰지 않고 로마체로 쓰는데 보통 이탤릭체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형태이고 로마체는 영문글자체를 그대로 쓴다. 품종은 색의 차이, 혹은 이와 같은 사소한 차이점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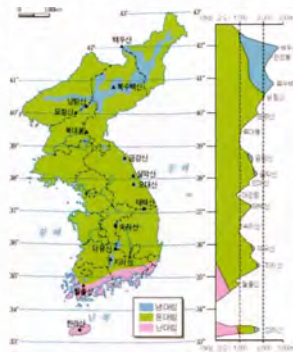
만약 한 속에 속하는 여러 종들이 함께 재배된다면, 그 식물들

이 교배되어 부모(?)의 특성을 공유하는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 교배종이 생식력이 있다면, 여러 세대에 걸친 식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가 되면, C. ‘Leonard Messel’ 과 같이 지어진 이름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 자손의 계통(혈통)이 모호해진다.

그러나 재배품종은 그 특징에 있어서 뚜렷하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이며 번식을 통해 가꾸어질 수 있다.

식물 육성자가 새로운 재배품종을 육성할 때 형식적으로 식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별칭(암호명)을 부여한다. 이 별칭은 식물의 상품명과는 다를 수 있다. 재배품종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성자들은 별칭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지는 식물 육성자 권리동맹(Plant Breeder’s Rights)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전 품목에 가입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돌연변이(Sports)는 유전적 요소의 변화로 초래된 변종으로 부모 식물과 다른 싹을 틔우거나 다른 꽃을 피운다. 모든 품종이 안정적이지는 아니며 몇몇 품종들은 때로 다시 본래의 부모의 특성을 띄게 된다.

식생(植生 vegetation)이란 지표에 덮은 상태 하에서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집합체(集合體)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형, 토양, 수계(水系) 등과 같은 자연경관의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기후, 토양, 지형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식물의 형태나 식생이 분포하는 유형(類型)이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의 위도 차에 따라 크게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순으로 분포한다. 또 남북 방향의 태백 산지를 경계로 영동과 영서 지방의 식생 분포가 차이를 보이고, 산의 높이에 따라 식생이 달라진다. 난대림은 1월 평균 기온 0℃ 선인 북위 35° 이남의 한반도 남단과 제주도 등 남해안의 도서 지방에 분포



한다. 주된 수종은 상록 활엽수림이다. 온대림은 북위 35°~43° 사이의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주된 수종은 낙엽활엽수림인 참나무류와 침엽수림인 소나무류이다.

냉대림은 개마고원 등 북부 고산 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중·남부 지방에서는 태백산지나 소백산지의 고산지대, 한라산 등에 분포한다. 주된 수종은 상록 침엽수와 자작나무류와 가문비나무, 측백나무, 주목, 구상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식물은 종류에 따라 생육 장소가 각각 정해져 있다. 그 이유는 기후, 토양, 지형 등의 무기적인 환경 조건과 생물 간의 경쟁, 공존 등의 규제 조건이 각각의 생물에 작용하여 그들의 생육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물은 대부분이 정해진 분포역을 가지고 있다. 식물의 분포는 개개의 분류군을 단위로 하여 이해되는 경우와 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어떻게 섞여 살고 있는지 밝히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식물상(植物相 : flora)의 연구를 통한 분포의 이해이고, 후자는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분포의 이해라 할 수 있다.

지리상의 여러 지역에 따른 식물상의 조사는 식물의 지리적 분포를 알게 하며, 또한 각각의 식물에 대한 생육지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어떤 식물이 정착할 때, 그 곳은 그 식물의 산지(產地)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분포가 광범위한 식물은 범존종(汎存種)이라 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생육하는 식물은 그 지역의 고유종(固有種)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위적인 이도에 의해서 도입되고 재배되는데 미국의 경우 식생분포도와는 다르게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를 대상으로 겨울의 최저온도를 바탕으로 전 북미지역을 11개 기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든 식물의 선택시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식물내성권역도(Plant Hardiness Zone Map)를 제작, 이용하는 등 가든 식물의 선정 및 생산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식물내성권역의 구분은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도입식물의 고려에도 그 활용도가 높다. 이에 반하여 천연분포역(Natural range)은 특정식물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생태권역(Ecoregion)은 한 분포역 또는 생태권역에서 식물을 선발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식물의 경우 동일한 천연분포역 내에서도 독특한 환경조건



에 따라 유전적으로 매우 특이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식재 분포역(Planting range)은 천연분포역보다 더 넓게 자리 잡아서 온도인자에 따른 식물의 이용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가든 식물의 이용에 매우 중요하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재 분포역이 없는 아쉬움이 있어 미국의 식물내성 권역도를 이용하면 중부지방은 Zone5 정도가 안전하고 전주 이남은 Zone6, 그리고 고창, 해남 등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경우는 Zone7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고산지대가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본 필자에 의해 작성 되어질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 식물 속 흙채보기는 식물의 많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식물 속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고 그에 포함되는 종들과 그들의 기본적인 특성 및 내한성, 번식법 등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번 호의 내용은 식물을 알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가끔 다시 펴보고 참고하길 바란다.

이제 우리가 정원의 속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더 정원 식물과 가까워질 수 있다. (다음호에 연재됩니다.)





한가한 1월,

휴식의 계절

한겨울이 되자 베란다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었다. 예전이었으면 출근하기 전에 꼭 베란다에 가서 식물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눈인사를 했을 텐데 요즘에는 눈인사를 생략하고 출근하기 일수이다. 그만큼 1월은 한가한 계절이다.

글·사진 오하나 파워블로거
허브향 가득한 케럼네 화단 <http://blog.naver.com/el512>



항상 베란다의 식물들을 관리하라 회사에 출근하라 바쁘다 바쁜 나날을 보내던 나다. 어느 분이 그랬더라? 회사를 다니면서 베란다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다. 정말 그렇다! 식물의 수가 적다면 상관없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출근하기 직전에 상태를 체크하고 각 식물마다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 부랴부랴 사진을 찍고, 그리고 퇴근한 후에 또 체크하고... 낮에는 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 주말 말고는 낮에 식물들을 체크할 수 있는 날은 흔치 않다. 그만큼 베란다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부지런함과 식물에 대한 큰 애정이 필요한 것이다. 매일매일 물은 언제쯤 주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병충해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그래야 풍성하고 싱그러운 식물들이 바글거리는 베란다 정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바깥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한겨울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2월에 단단히베란다 정원 월동 준비를 끝낸 이후, 식물들의 변화는 티디고 물주는 횟수도 확 줄어드니 베란다로 들어가는 횟수가 뜸해졌다. 아마 점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두컴컴한 탓도 있는 듯하다. 덕분에 아침 잠이 많아지니 식물들을 체크하는 것이 게을러지는 것이겠지. 그럴 매일수목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되새기고 되새긴다.

한겨울은 그 동안 바쁘게 베란다를 관리해온 베란다 가드너가 휴식을 취하고 게으름을 피워도 좋은 시기이다. 물론 겨울을 대비하여 월동 준비를 제대로 했을 때의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베란다 정원 월동을 대비해 놓지 않았다면 뒤늦은 월동 준비를 시작할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 동안의 고생을 생각하며 추운 2~3개월 정도는 게으름을 피우며 다른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미처 생각지 못한 식

물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을 수 있으니 꼭 하루에 한번 이상은 체크를 해주도록 하자. 흙의 물은 말랐는지 잎이 비실거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온도계의 온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매일 매일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한가해도 좋은 시기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식물들을 죽이기 쉬운 시기라는 사실, 잊지 말도록 하자. 사실 갓 결혼을 하여 살게 된 신혼집이다 보니 현재의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월동 시키는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 살던 곳이었다면 겨울에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지 금세 파악하고 대비를 하였을 텐데 새로 살게 된 신혼집은 겨울에 들어서고부터 불안의 연속이었다.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가면 베란다의 온도가 얼마까지 내려갈지 감이 오지 않아 매일 아침 저녁 마다 식물들에게 눈인사를 하는 것은 잊어버려도 온도계의 온도를 체크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 주말 하루 날 잡아서 식물들을 옮겨 놓았던 선반에 간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크게 온도를 올려주지는 않지만 찬 바람을 막아주는 데 한 몫 해주겠지.

겨울이라서 습도가 많이 낮을까 꽤 걱정했는데 결코 현상 때문인지 60~80% 정도로 오히려 여름 때보다 습도가 높아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뺨뺨를 닦은 날은 80%를 훌쩍 넘기도 하니 오히려 과한 습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열 에어캡을 베란다 창문에 붙였다가 햇빛의 들어오는 양이 줄어든다고 떼어버렸었는데 결국 결코 현상 때문에 창문에 물방울이 생기자 다시 붙여주게 되었다. 단열 에어캡을 붙이면 결코 현상을 예방하고, 온도를 약 2도 정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햇빛이 드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코 현상이 없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남향 베란다의 경우에는 단

열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열 에어캡을 베란다 창문에 붙였다가 햇빛의 들어오는 양이 줄어든다고 떼어버렸었는데 결국 결코 현상 때문에 창문에 물방울이 생기자 다시 붙여주게 되었다. 단열 에어캡을 붙이면 결코 현상을 예방하고, 온도를 약 2도 정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햇빛이 드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코 현상이 없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남향 베란다의 경우에는 단



열 에어캡보다는 비닐을 이용하여 온도를 올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습도가 낮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고정관념에 사로 잡혔었나 보다. 습도계를 체크하지 않고 매일 베란다 습도를 올리려고 노력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베란다가 너무 습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식물들이 과습으로 물러버리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올 겨울은 식물을 키우는데 “평균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베란다 환경”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은 겨울이 된 것 같다.

실내로 옮긴 관엽식물들

우리 집은 실내 공간이 협소한 편이어서 거의 모든 식물을 베란다에 놓고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한겨울이 되니 베란다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 추위에 약한 관엽식물들은 실내 공간으로 옮겨 놓았다. 5도까지도 버티는 내음성이 강한 일부 관엽식물도 실내로 옮겨 놓았는데 온도가 높아서인지 추운 베란다보다 실내에서 더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음성이 강한 종류라면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잎이 성장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꽃을 피워준 바람개비 사랑초

늦가을부터 꽃을 피워 서늘한 계절을 빛내주는 사랑초 종류들! 우리 집 베란다의 가을부터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낮에는 주로 회사에 가 있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시간에만 꽃이 피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 꽃잎을 바로 다물어 버리는 바람개비 사랑초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만에 꽃이 피었다 시들어 버리는 식물들 또한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다. 주말에 가장 밝은 곳에 두고 스텐드 3개를 동원하여 조명을 비추어 피워낸 사랑초의 꽃이 얼마나 소중한고 고맙던지! 일반적으로 실내 조명으로는 꽃을 피우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물 바로 앞에 스텐드 등의 밝은 조명을 놓아 비춰주면 햇볕이 부족해도 꽃을 피우는 것이 가능하다.



실내로 옮긴 관엽식물들



꽃을 피워준 바람개비 사랑초

선반에 간이 비닐하우스 만들기

1. 간이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천원샵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김장 비닐이다. 여기에서는 김장비닐을 준비하였지만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준비해도 좋고, 투명 포장지를 준비해도 좋다.
2. 김장 비닐은 아래와 옆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위를 이용하여 막혀 있는 아랫 부분과 옆 부분을 잘라 준다.
3. 가위로 잘라 펼쳤더니 이렇게 한장으로 펼쳐진다. 선반의 길이와 비교하여 길이가 맞는지 확인한다.
4. 선반에 비해 김장 비닐의 길이가 짧을 경우 투명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김장 비닐을 한장 더 아래에 연결하여 선반의 길이에 맞게 이어준다.
5. 선반의 주변에 비닐을 둘러 윗 부분을 스텐들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해 준다. 온도가 몹시 낮은 베란다의 경우에는 비닐을 여러 겹 둘러주면 온도를 올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6. 물을 줄 때에는 옆의 트여져 있는 곳을 열어 화분에 물을 부어주면 된다. 온도가 높은 낮에는 한번씩 환기를 위해 열어주면 좋다.



아파트 베란다 정원

나무들은 묵은 옷을 벗고 봄의 새 옷을 꿈꾸고, 사람들은 지난해의 나쁜 일들을 벗어버리고 새해의 희망을 꿈꾼다. 새해에는 정원으로 꿈꾸는 모든 이들이 만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맑은 대가를 염원해 본다.



글·사진 이향난



Veranda Garden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 있는 이향난씨의 아파트에는 겨울이 지나 항상 꽃이 있는 베란다 정원이 있다. 2007년 입주 당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을 그대로 활용하여 수국, 홍콩야자, 천남궁, 타아라, 캄파놀라, 산돌레페로미아, 자주 달개비, 골드 달개비, 아이비, 호야, 풍난 등과 춘, 추식 구근, 여러 가지 다육식물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키가 낮은 관엽식물이 식재된 정원에는 뱀틀 분수, 화산석, 태양열등(솔라등), 향아리, 솟대, 조각품, 동물인형, 토피어리 등의 소품으로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입주 후 환경 호르몬을 줄여 준다는 식물의 좋은 점을 활용하기 위해 직접 조성한 베란다 정원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푼 가슴을 안고 시작한 정원에 회귀하고 키가 큰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구입해 조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물들간의 식생의 특성들이 달라 하나 둘씩 고사하면서

매번 나무를 사다가 보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가격의 부담과 키 큰 나무의 식재는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 매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한다. 우연히 책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되어야지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좀더 쉽게 관리가 용이한 작은 관엽식물을 선택해 식재하다 보니 지금의 정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화단 한쪽으로는 여름에 실내에서 기르던 다육식물 화분들을 겨울에는 내어 놓아 충분히 빛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그 밑으로는 구근이 심겨져 있는데, 춘식 구근과 추식 구근을 구분하여, 추식 구근은 바깥쪽으로 춘식 구근은 안쪽으로 식재해 겨울을 난다고 한다. 봄이 되면 다육식물들을 안으로 들고, 그 자리에는 추식 구근인 수선화, 무스카리, 튜립, 크로커스 꽃이 피고,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춘식 구근인 다알리아, 아마



릴리스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 구근은 2~3년이면 퇴화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보충해 준다고 한다. 다소 스케일이 작은 감은 있으나 아기자기한 나름대로의 맛과 이야기가 있는 정원이 지금 주인장에게는 작은 기쁨이라고 한다.

베란다에 식물을 기른다는 것은 실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적당한 광량과 통풍과 습도 등이 식물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며 조절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주인장의 경우 하루의 두 번 정도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겨울에는 해가 뜬 후 창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화단 옆 베란다 창가에 롤스크린을 설치해서 한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차광하고, 겨울에는 밤의 차가운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땀들로 된 분수



와 아침 저녁으로 분무기를 사용해 적당한 습도도 조절한다고 한다. 아파트 베란다 화단의 경우 플라이트와 실내용 경량토를 주로 사용하는데, 토양 속의 영양분 소멸과 산성화, 감염, 충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주인장은 전체적인 교체가 어려워 지렁이 배변 속성토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식물 보식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원두커피 찌꺼기를 밑봉해 1년 동안 숙성한 것을 토양 위에 뿌려서 거름을 대신하고, 가끔 액체비료를 희석한 것을 분무해 영양을 보충한다고 한다. 병해충 방제는 목초액 희석한 것을 정기적으로 뿌려주고, 민달팽이는 저녁에 음식을 하고 남은 무나 오이, 당근 등의 물기가 많은

채소를 화단 위에 올려 놓으면 야행성인 민달팽이가 채소에 붙어 이것을 새벽에 가져다 버리면 된다고 한다.

근래에는 베란다뿐 아니라 실내 녹화에도 관심이 생겨 커피잔, 와인박스, 조개 껍질 등에 조그만 손바닥 정원을 만들어 집안 곳곳에 두고 조금이라도 환경호르몬을 없애 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대기 오염을 줄인다는 것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것은 덜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고, 조금씩 초록색을 넓히다 보면 후대에도 좋은 환경을 물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생 동안 내 자손의 것을 빌려 쓴다고 생각하면 조심스러워 아껴서 쓸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Veranda Garden



병해충의 겨울나기

글·사진 차병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그림1 서로 모여 있어서 저온에 대한 내성을 높여주는 꽃매미 알덩어리(출처: 전북농업기술원).



그림2 두꺼운 피막으로 뒤덮여 놓은 매미 나뭇의 알덩어리.



그림3 외부의 찬 기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피(A)와 감염된 기주식물의 진채를 의미(B)



그림4 두꺼운 겹집이 여러 겹 감싸서 보호하고 있는 겨울눈.

바람이 엄청 차가워졌지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집안에서 처박혀서 군고구마 먹으며 만화책이나 읽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겨울날입니다. 식물들도 대부분 잎을 다 떨어뜨리고 단단한 표피로 둘러싸인 가지만으로 겨울바람을 견디어 내고 있지요.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항상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나 노숙자들을 걱정해 주는 것이 우리네 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겨울을 병해충들은 어떻게 견디어낼까요?

계절의 변화가 있는 곳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겨울을 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동물들은 털갈이를 하여 체온을 유지하려 하고, 어떤 동물들은 아예 겨울잠을 자러 안전한 곳을 찾아 들어가 버리기도 한다. 식물들은 두꺼운 겹집으로 겨울눈을 여러 겹 둘러싸서 얼지 않게 한다. 모든 생물들이 겨울나기를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해충 역시 생물이므로 겨울을 제대로 나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 실제로 겨울이 매우 추우면 얼어 죽는 병해충들이 많아서 이듬해의 병해충 발생이 적은 반면, 겨울이 마듯했을 경우에는 병해충들이 대부분 살아남아서 이듬해 발생량이 많아지므로 농약회사들은 겨울철 온도 변화를 보고 이듬해 봄의 농약생산량을 조절한다고 한다.

병해충들은 어떻게 겨울을 날까?

우선 해충들을 먼저 살펴보자. 해충들은 다리를 8개 가지고 있는 웅애들이나 다리가 없는 달팽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곤충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매우 높은 편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해충들은 그 추운 겨울을 견디어 낼 수 없다. 이런 해충들은 자신은 추위를 견디어 내지 못하는 대신 종족번식을 위하여 추운 겨울도 잘 버티어 낼 수 있는 ‘알’을 낳고 자신은 생태계로부터 사라진다. 알들은 대개 겹집으로 두껍고 지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혹한 환경, 특히 저온과 건조에 견디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런데 해충들은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알을 낳는 장소까지 가림으로써 알의 월동 능력을 배 이상으로 키워주고 있다. 즉, 알들을 한 곳에 덩어리로 모아 놓음으로써 서로 의지하여 저온에도 잘 견디게 하는가 하면(그림 1), 두꺼운 피막 등으로 덮어 씌워 천적은 물론 저온으로부터도 보호하기도 한다(그림 2). 알 덩어리가 크지 않으면 가지가 갈라진 곳 같이 바람을 막아주는 구조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이나 장소는 그 해충이 자신의 후계자인 ‘알’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노력인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장소들은 해충의 월동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해충은 알로써 월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월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기주식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해충들 역시 마듯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겨울잠을 자듯이 꼼짝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림 3). 예를 들면, 한 동안 길 가의 가로수에 많은 피해를 일으켰던 버즘나무방패벌레는 겨울 동안 버즘나무(플라타너스) 몸통의 나무껍질 밑에 들어가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웅애 같이 작은 벌레들은 식물의 겨울눈(그림 4)에 들어가 월동하기도 하고, 나무줄기를 파먹고 사는 것들은 나무줄기 안에서 월동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겨울나기 장소를 찾았다고 무턱대고 월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여 체내에 지질 함량을 높이는 등 자신의 몸을 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다. 병원균도 크게 보면 해충 또는 다른 동식물의 월동과 다를 바 없다.

상당히 많은 병원균들이 가을이면 월동준비에 바쁘다. 평상시에는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던 유성생식 방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곰팡이에도 암, 수가 있다. 다만, (+), (-)로 표시할 뿐이다). 이들은 유성생식을 통하여 유성포자들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이 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구조물까지 만들어 주기도 한다(그림 5).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포자들은 겹집에가 매우 두꺼워 저온과 건조를 견디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심지어는 이런 상태로 몇 년 씩을 버티며 때를 기다리기도 한다.

어떤 병원균들은 유성생식을 하지 않고, 무성적인 방법만으로도 월동용 구조물들을 만들어 낸다. 가을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균사의 몇 세포들이 옆 세포들보다 크기가 커지면서 벽이 매우 두꺼워지는 ‘후벽포자(chlamydospore)’라는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균사가 매우 단단하게 뭉쳐서 ‘균핵(sclerotium)’이라고 부르는 겹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림5 흰가루병균에 감염된 식물의 잎에 병원균의 월동을 위해 만들어진 자낭구.

이러한 구조물들은 건조와 저온에 견디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겨울을 나기 좋으며, 실제로 토양 속에서는 종에 따라 십년 이상을 죽지 않고 버티는 것들도 있다.

어떤 병원균들은 특별한 월동기구를 만들지 않고 스스로 월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파이토플라스마나 바이러스 같이 대부분 식물 조직 내부에서만 기생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때로는 내외부를 모두 감염하는 일부 곰팡이들도 나무껍질 사이, 겨울눈 등에서 월동하며 잠복하고 있다가 이듬해 봄에 썩어 나오면 바로 감염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월동준비를 해 놓는 곳은 대부분 기주 식물의 조직이다. 특히 해충과는 달리 운동성이 없는 병원균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월동 포자나 구조물들을 기주식물의 감염조직에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그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크게 도와주는 일이다. 왜냐면, 우리는 이 병해충들이 월동하고 있는 감염된 식물 조직만 제거하면 이듬해에 병해충을 일으키는 전염원까지 모두 제거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는 온도가 영하로까지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며, 적어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유지가 되므로 병해충도 월동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식물이 살아서 재배되고 있는 한 병해충 역시 겨울나기 없이 계속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온도를 낮추어 주면 병해충의 발생을 줄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물보다는 병해충들이 저온에 견디는 능력이 더 뛰어나므로, 저온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하면 기주식물을 죽이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병해충들은 감염된 기주식물 조직뿐만 아니라 식물들을 키웠던 화분이나 토양에서 월동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식물이 없는 화분이라면 온도가 낮은 밖에 내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급적이면 병해충이 발생하였던 화분의 흙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며, 그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알고 싶다 테라리움(TERRARIUM)



테라리움의 기원 배경은 영국의 산업혁명(産業革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런던의 공기 오염은 심각해지고, 도시정원의 식물들은 죽어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원예 분야 종사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테라리움의 탄생은 예고된다.



윤평섭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명예교수

Terrarium



테라리움의 관상시기

테라리움은 추운계절의 실내관상용으로 이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11월부터 4월까지 실내에서 관상하면 좋은 것으로 본다. 더운 여름에는 밀폐된 환경에서 고온다습으로 식물이 물러죽거나 망가져 볼품없이 되는 경우가 많아 냉방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관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테라리움 흙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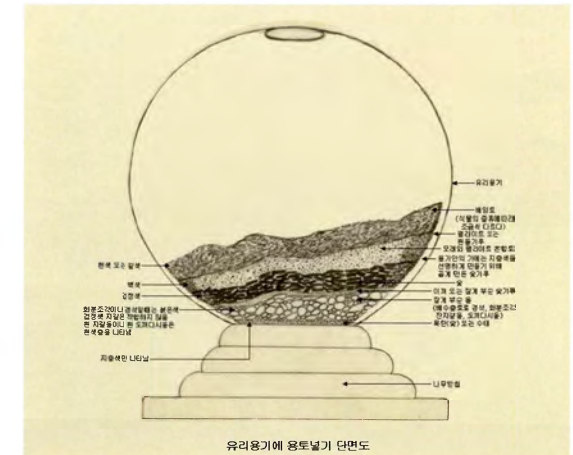
테라리움의 식재는 용기 바닥에 숯을 깔고 그 위에 배수층 슈가토나 경석을 넣고 식물에 알맞은 배양토를 넣는다. 배양토를 넣기 전에 지층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색이 나는 토양이나 색이 있는 돌가루나 잔돌들을 유리가장자리에 색별로 층을 만들어 보기 좋게 배치하고 중앙에는 배양토를 넣고 식물을 식재한다.

지표면에는 배양토가 보이는 것이 좋다면 흰자갈이나 색돌, 또는 하이드로볼, 수태 등으로 덮어서 장식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마른 흙이나 돌가루를 쓰게 되면 먼지가 나 유리표면에 붙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토양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구리가 작은 항아리나 병을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한다.

배양토는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 피트모스를 3:3:3의 비율로 배합해서 사용하며 기타 색돌이나 잔자갈은 장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기 좋게 배열만 잘하면 된다.





테라리움 분류

재료에 의한 분류는 유리용기, 아크릴 용기, 목재와 유리의 절충식 용기, 도자기와 유리의 절충식 용기, 석물과 유리의 절충식 용기, 유리 용기와 유리의 절충식 용기를 들 수 있다. 형태에 의한 분류로는 테라리움 용기 입구의 크기에 의한 분류로 입구가 작은 용기, 입구가 큰 용기로 나눌 수 있고 외형의 형태에 의한 분류로는 곡면용기나 다각면 용기, 집모양, 병모양 항아리모양, 컵모양 등 다양하다.



용도에 의한 분류로는 벽걸이 테라리움, 공중걸이 테라리움, 전화대용 테라리움, 탁상용 테라리움, 코너용 테라리움, 문갑형 테라리움, 스탠드용 테라리움, 병풍용 테라리움, 기타 장식용 테라리움으로 분류한다. 크기에 의한 분류로는 대형테라리움, 중형테라리움, 소형테라리움으로 분류한다. 기타크기 형태의 테라리움의 분류로는 극대형테라리움, 극소형 테라리움, 수생테라리움으로 분류한다.



Terrarium



가재발선인장

가재발선인장은 특이하고 화려한 꽃이 마치 상들리에처럼 피어나는 대표적인 겨울 화초이다. 이 매력적인 선인장에 대해 알아보자.



선인장 중 키우기 쉬운 측에 속한다

가재발선인장은 남미 정글의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식물이다. 그렇기에 건조지가 원산지인 선인장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라 키우기가 쉬운 편이다. 키는 약 30~50cm 까지 크며 겨울에 개화하고 꽃의 색은 흰색, 금색, 적색, 자주색, 분홍색 등이 있다. 포기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가지가 많을수록 꽃이 많이 피므로 오래된 포기는 작은 포기와 비교 불가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꽃이 없는 계절에도 가지가 버드나무처럼 늘어진 모습이 볼 만한 멋진 식물이다. 가까운 식물로는 계발선인장이란 식물도 있는데 이 식물은 가재발선인장과 줄기 모양과 꽃 모양, 개화기가 다를 뿐 성질이 비슷해 가재발선인장에 준해 키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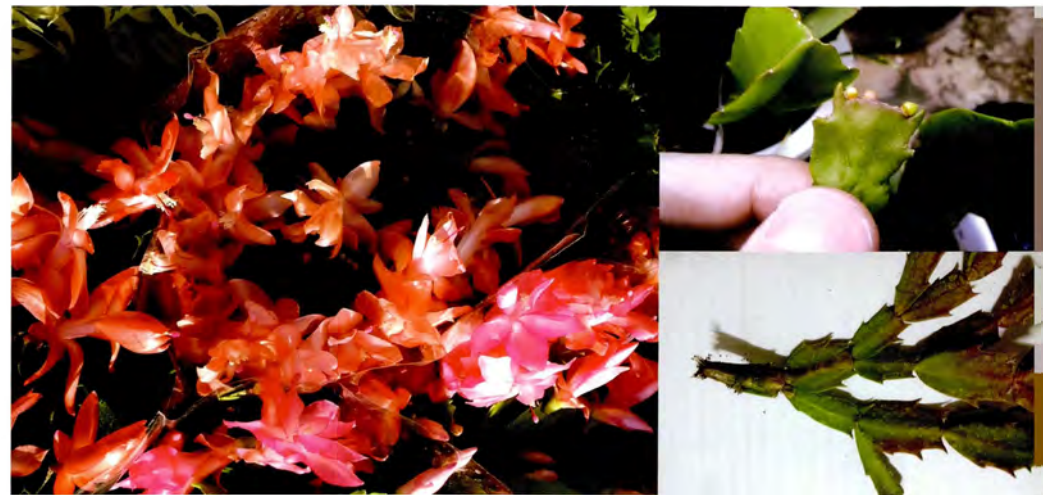
식재정보 여름 직사광선은 피한다

계발선인장이 정글의 나무에 붙어사는 선인장이므로 배수가 좋고 보습력이 좋은 토양을 선호한다. 상토나 밭흙에 마사토를 30% 정도 섞은 용토에 심어준다. 이 선인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지월동이 안 되므로 화분에 심어야 하는데 화분을 선택할 때는 위아래로 길기만 한 화분보다는 높이가 지름이 비슷한 화분에 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긴 화분은 화분 속 토양이 과습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가재발선인장의 포기 크기보다 월등히 큰 화분에도 심지 않는 것이 좋다. 포기 크기에 알맞은 화분이나 포기보다 약간 크거나 작은 화분에 심는 것이 오히려 좋다. 햇볕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한다. 여름에 가재발선인장이 직사광선을 받으면 화상을 입기 쉽기 때문에 발 등으로 반그늘을 만들어 그 곳에서 관리하면 된다. 잎이 빨개지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강한 햇볕을 받은 것이므로 적절한 장소에 옮겨 관리한다.

비료, 물주기 물은 의외로 자주 주어야 한다

가재발선인장은 습도가 높고 비가 종종 오는 곳이 원산지이므로 그래서 다른 선인장처럼 물을 싫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물을 잘 저장하지 못해 물을 3주 이상 주지 않으면 말라버리기 십상이다. 물은 평소에는 갈증이 마를 때나, 주 2회 정도 주면 되며 9월부터는 물을 덜 주어야 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므로 주 1회만 주고, 겨울에는 생장이 멈추므로 물을 1달에 한 번 정도만 주면 된다. 겨울을 제외한 생장기에는 잎에 스프레이를 뿌려 습도를 높



게 해주면 더욱 좋다.

비료는 봄부터 6월까지 물에 녹인 액비를 2주에 한 번 공급해준다. 7월 이후로 비료를 주게 되면 꽃이 생기지 않고 식물체만 자라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료를 끊는 시기를 지켜야 한다.

가재발선인장 꽃 피우기 밤중에 인공조명을 받지 않게 한다

가재발선인장은 단일식물로 낮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 때 꽃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냥 배란다나 노지에 놔두면 자연스럽게 꽃눈이 생기고 겨울에 꽃이 피게 된다.

그런데 한밤중의 인공조명이 꽃눈이 생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밤에 인공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개화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데, 봄이나 여름에도 하루 13시간 이상 빛이 통하지 않는 상자에 꾸준히 넣어두면 일찍 개화시킬 수 있고, 가을 한밤중에 인공조명을 비춰 꽃눈 생성을 막으면 개화기가 늦어진다. 그리고 가재발선인장은 생장이 완료된 줄기의 끝에 꽃눈이 생기므로 비료는 7월부터 주지 말고, 9월부터는 물을 2주에 한 번 주면 겨울 1주에 한 번 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고, 가지 끝까지 생장이 완료되게 한다.

번식법 삽목으로 매우 쉽게 번식된다

가재발선인장은 삽목으로 쉽게 번식이 되는데, 3마디정도를 잘라내어 하루 정도 말리고 흙에 꽂으면 뿌리가 3주 내로 나온다. 온도만 맞는다면 사계절 내내 삽목이 가능하지만 가장 적기는 봄과 초가을이다. 사진처럼 꼭 3마디가 아니더라도 삽목을 하면 발근이 잘 되는 편이고, 뿌리만 죽고 지상부는 살아있는 상태라면 삽목으로 얼마든지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병충해 병충해에 잘 걸리지 않는다

특히 병충해에 잘 걸리지 않는 편이지만 토양이 과습하면 뿌리가 썩기 쉽다. 가끔 꺾기병에 걸리기도 하므로 손으로 잡거나 살충제를 뿌린 후 통풍이 잘 되게 한다.

가재발선인장의 월동 추위에 약하다

가재발선인장은 겨울에 꽃이 피나 추위에 약해 영상 5℃도 이하에서는 생명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상 10도 정도 되는 장소에서 월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창가가 있다면 그 곳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선물 받은 꽃바구니를 활용한 바스켓 가든

꽃바구니를 선물 받고 꽃이 지고 난 후의 바구니는 재활용품으로 수거해 가지 않아 골치 덩어리이다. 이 바구니에 식물을 식재해 새해 선물을 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자.



재료

피토니아 화이트스타, 베고니아, 트리안, 드라세나 산드라, 싱고니움, 아이비, 바구니, 펄라이트, 돌, 배양토, 수태, 인형, OPP(비닐), 빵끈, 픽



만드는법



선물용이므로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수층은 펄라이트로 한다.



배양토를 넣는다.



드라세나를 포트에서 분리하여 식재한다.



키가 큰 식물부터 심어 나간다.



빈 곳이 없도록 흙으로 채운다.



흙 위에 수태를 얹는다.



돌을 앞쪽으로 놓는다.



인형을 놓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



뒤에 선물할 내용을 적어 꽃아 준다.



OPP 비닐을 감싸고 양끝을 빵끈을 길게 잘라서 묶는다.



빵끈을 연필로 감이 스프링 모양이 되게 한 다음 끝 부분을 잡아 당겨 모양을 잡아 준다.



완성

도시농업의 재해석

귀농과 교육

글 한윤희 기자

도시농업이란?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고 그 역할도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도시농업을 정의하는 경우 현재의 실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정의해야 합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을 말하며, 환경보전이나 재해방지, 경관형성 등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활동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생업으로서의 농업인과 생활농업으로서의 텃밭농원 이용자, 그리고 교류나 직거래와 귀농에 참가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농업활동을 통해 도시민은 농업체험이라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자가소비용 채소를 확보하는 동시에 교류나 직거래 등을 통해 인근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일반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귀농에 대한 파생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민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가져와 도농상생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시농업은 왜 필요한 걸까요?

도시농업의 다양한 유형에 비추어봤을 때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② 휴식·여가·정서 함양, ③ 농업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④ 어린이 학습기회 제공, ⑤ 지역에 아름다운 경관형성, ⑥ 시가지의 과밀 방지, ⑦ 농업과 관련한 전통문화 유지·계승, ⑧ 생물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경제적가치

도시농업에서 우리는 자연순환 개념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이용하고, 빗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추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가치

환경적으로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탄소의 배출을 경감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에 다양하게 심어진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수분을 배출함으로써 사람들의 호흡기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농장은 전통적인 품종 및 도시 환경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지원 구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적가치

도시농업을 소외계층과 귀농준비자를 위해 사회적 복지제도로 이용하는 것은 직접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의지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적·문화적 가치

옥상텃밭, 상자텃밭 등은 아이들이 자연과 환경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또한 농업인·도시민들의 교류를 통해 농촌문화를 보존할 수 있고, 자연생태 관련 기술과 문화를 계승하는 계기로 도시민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에 대해 문화적 의미와 예술적 영감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교육을 통해 농업에 대해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된다.

창의적 도시 농업 그리고 4H농장

도시농업을 실용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지원은 도시농장의 유기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농장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다른 도시농장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농장의 실수의 원인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도시농장의 계획, 개발 및 운영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지난 30년간의 사회, 환경 및 경제 교훈을 결합한 과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농장을 계획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데 하나는 환경친화적인 농장, 다른 하나는 도시농장의 분위기, 즉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시농장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5R(Reduce, Reuse, Repair, Recycle, Review)이





일상 작업의 중심이 됩니다. 도시농장은 지역공동체와 방문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다양한 활동에 자극받고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많은 도시 농장들은 세대 간 격차의 다리가 되어주고 고령세대에 따뜻한 환경과 격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장들은 도시공동체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목표를 결합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귀농준비에 도움을 주는 데 간단한 예로는 신선한 농장 생산물을 사용, 직업 훈련, 건강한 식습관의 제공하며 사회적 만남을 주선하는 커뮤니티 카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시농장은 각박한 도시환경과 다른 '녹색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와 요구를 반영한 활동과 프로그램은 무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음식 재배와 생산, 축산 및 복지, 자연 보호, 퇴비 및 자원 재활용, 어린이의 놀이프로그램이나 소풍 등의 장소, 노인 및 장애인 프로그램, 예술과 공예 수업,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학교 방문 및 어린이의 교육 및 사회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 회의 장소, 계절 축제나 이벤트 장소, 휴양지 및 모든 연령대의 교육활동지, 방문 및 견학 공간, 새로운 기술 습득 및 귀농교육의 기회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2010년 국립협회회의(National Association Meeting 2010)에서 결정된 '4H농장'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의 4H는 1902년 오하이오 학교 교장인 A.V.Graham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옥수수를 주제로 한 특별활동으로 시작되었고 첫 4H 교육프로그램은 1907년 미시시피의 대학과 제휴를 맺게 되면서 대학과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정부의 원조를 받는 대학이 가진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H



참고 송정섭 박사의 4H(2011), <도시농업의 매력과 가치> EFCF/European federation of city farms (2003), <Creating a new city farm>

운동'은 생활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상과 농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학습하여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운동입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 건립된 '4H 농장'은 개인의 성격발달, 세대 간 만남을 통해 이해를 장려하고 국제협력을 증진시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국가의 비슷한 조직과 접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후 전립생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나 귀농은 준비하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이 될 것입니다. '4H'에 관련된 규칙과 기본 요구조건은 스웨덴 4H 및 국제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가든을 만들어보자

봄에는 산수유, 여름엔 참나리, 가을엔 구절초, 겨울엔 소나무 등 우리 산야에 나는 야생화만으로도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다. 개인주택에 살면서 정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정원이든 학교정원이든 공동으로 만들어 가꾸보는 것도 신나고 공동체 의식도 높여줄 수 있는 유익한 일이다. 목본류와 초본류를 고루 사용할수록 다양한 정원이 된다. 즉 봄에는 산수유, 개나리, 목련, 노루귀, 깽깽이풀, 앵초, 매발톱꽃, 할미꽃 등을 여름에는 작살나무, 산딸나무, 누리장나무, 하늘나리, 참나리 상사화, 별개미취 등, 가을에는 단풍나무, 히어리, 화살나무, 구절초, 쑥부쟁이, 용담 등, 겨울에는 소나무, 주목, 사철나무, 매문둥, 수호초, 털머위

등이다. 특히 초본류들은 종에 따라 좋아하는 환경이 다르므로 그 높이나 별의 정도를 판단하여 잘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유가 있다면 한 쪽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수생식물을 길러 곤충들까지 가세하게 되어 정원은 그야말로 자연학습장이 된다.

꽃처럼 살 수 있다면

정원에 자라고 있는 꽃이나 나무는 인간과 닮은 점이 참 많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식물로부터 많은 점을 배운다. 특히 우리가 꽃을 통해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꽃들의 생김새다. 지구상에 꽃 피는 식물이 25만종이며 여기서 유래된 품종까지 친다면 수십억 종류는 될 것이다. 하지만 형태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단 한 종도 없다. 마치 지구상에 사는 68억 인구가 모두 생김새가 다르듯이 말이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고유 모양과 살면서 나만의 캐릭터를 갖게 되니 꽃처럼 살 운명은 갖고 태어난 게 아닌가 싶다. 둘째 대부분 꽃이 향기를 갖고 있고 모양이 아름다워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며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사람들도 요즘 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셋째 꽃은 홀로 피지 않고 늘 무리지어 핀다. 코스모스가 혼자 있으면 가벼운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만 무리지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웬만한 태풍에도 끄덕하지 않는다. 식물들도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사람도 독불장군 보다는 늘 이웃이나 주변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 사는 것이 꽃처럼 사는 것인지 한 번씩 되새겨볼만 하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너무나 멋지다

많은 나라를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봄에 전국 어디서든 노란 개나리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은 지구상에 흔치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다. 4월의 노란 개나리에 이어 5~6월의 철쭉, 여름의 산딸나무, 금계국,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소나무 등 전 국토의 사계절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전국의 65%가 산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비교적 물이 풍부하며 사계절이 뚜렷한 중위도 지방이면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대부분 지역이 온대지만 한대로부터 난대에 이르기까지 기후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환경 덕분에 우리나라에는 약 4,600여종의 식물이 분포한다. 절대종수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단위면적당 분포하는 식생수로 본다면 면적에 비해 정말 많은 식물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우리 산야에 자생하는 식물만 갖고도 4계절 훌륭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정원, 자연에 대한 관심

도시민 대상 야생화, 도시원예, 정원 가꾸기 등을 강의하다 보면





“가드닝,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통로”

참석자들의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함을 느낀다. 이러한 가드닝에 대한 깊은 관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였지만 특히 나이가 좀 더 들고 오랜 세월 도시생활을 한 분일수록 더 크다. 그동안 회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서만 살다 보니 녹색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농촌사람들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70 넘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귀농교육을 신청하여 모든 교육을 철저히 받거나 며느리와 함께 수업을 받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 열정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도시생활에 지쳐 자연을 동경하는 것이 주된 이유겠지만 자연을 향한 인간의 귀소본능도 한몫을 한 게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꽃에 대한 관심은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꽃 사는데 쓴 돈은 평균 15천원에 불과하다.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10만원을 훨씬 웃돈다.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꽃 소비문화는 한참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즉 우리 생활이 물질적으로는 웬만큼 풍요로워졌는데 꽃으로 본 정서적인 수준이나 문화의식은 그만큼 낡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아직도 꽃을 사치품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선진국들처럼 꽃이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는 데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화될수록 자연과 교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자연주의, 생태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가드닝은 꽃을 생활화 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활동이며, 직접 만들고 가꾸면서 꽃(식물)과 자연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게 되어 몸은 물론 마음까지 힐링하며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본임을 깨닫게 해 주는 가드닝

사실 자연을 구성하는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사람도 그저 하나의 생물종에 불과하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인간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식물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삶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정서나 의식수준이 높은 선진 국민일수록 자연과의 교감, 생태환경의 중요성 등 자연과 공존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우리가 야생화를 대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위에서 말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Homo sapiens)이나 산구철초(Chrysanthemum zawadskii)나 종 단위의 구성요소로써 굳이 계급을 구분하자면 동일한 위치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산이나 들, 정원에서 식물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생물적 책무도 있음을 일깨워준다. 사실 사람은 숨을 쉬면서 대기 중의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 그러니 사람은 식물 없이 살 수 없지만 식물은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같은 생물종으로써 사람이 식물에게 정말 잘 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생활에 야생화를 어떻게 쓸 건지 하는 점이다. 나물용으로 이용할 건지, 정원의 화단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 꽃꽂이용으로 활용할 건지 지극히 사람입장에서 본 것이다.



자연은 알수록 신비롭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자연과 교감한다는 것을 뜻한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원에서 펼쳐질 사계절 꽃과 곤충들의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많은 식물들이 자신의 성장과 종족번식을 위해 얼마나 힘들고 눈물겨운 경쟁을 벌이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른 봄에 피는 복수초가 언제 꽃눈을 만들고 이 꽃눈들이 내년에 꽃을 제대로 피기 위해 무덤과 힘든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산수국이 엄연히 꽃이 있는데 왜 가짜 꽃을 만들어야 하는지, 상사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내리사랑을 하는지, 깽깽이풀 씨앗이 왜 개미와 공생해야 하는지, 개미는 진딧물을 잡아먹지 않고 어떻게 공생관계를 유지하는지, 개암나무나 밤나무는 왜 잎맞이 수꽃 위에 달려 피는지... 정말 자연의 모습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상상을 초월한다. 가드닝을 통해 식물과 교감하며 자연의 일부를 이해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일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원에 다음 호 연재)



글·사진 송정섭 이학박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귀농의 전원생활 적합도 테스트

다음은 내가 전원생활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적합도 테스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점수에 ○로 표시하세요. 항목마다 함께 점수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 보기를 참고하여 자신의 전원생활 적합도를 파악해 보세요.

진단항목	그렇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합계	[이점]			
1. 나는 텃밭과 정원에서 휴를 만지는 것이 좋다				
2. 나는 자연 현상의 변화에 호기심이 많다				
3. 나는 조용한 곳이 좋다				
4. 나는 내가 선택한 주도적인 삶을 산다				
5. 나는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다				
6. 나는 언젠가 직접 내 손으로 집을 짓고 싶다				
7. 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8. 나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9. 나는 단계별 은퇴를 원한다				
10. 나는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다				
11. 나는 이웃과 잘 지낸다				
12. 나는 가족을 잘 설득할수 있다				
13. 나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14. 나는 나만의 작업장이 필요하다				
15.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				
16. 나는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				



진단항목	그렇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7. 나는 동호인들과 같이 살고 싶다				
18.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				
19. 나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				
19. 나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				
20. 나는 어린시절의 고향이 그립다				
21. 나는 지인들의 전원생활이 부럽다				
22. 나는 자녀들의 교육으로부터 자유롭다				
23. 나의배우자는 도시생활에 힘들어 한다				
24. 나는 아파트생활이 불편하다				
25. 나는 최소비용으로 사는 생태적 삶이 옳다고 생각한다				
26. 나는 속도와 경쟁의 삶에 지쳐있다				
27. 나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8. 나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줄 안다				
29.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편이다				
30. 나는 여행을 즐긴다				
31. 나는 오감이 민감한 편이다				
32. 나는 나만의 시간을 잘 갖는다				

진단항목	그렇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33. 나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불안해하지 않고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다				
34. 나는 생명사상과 생태주의에 관심이 많다				
35. 나는 환경친화적인 삶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36. 나는 내 주변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의지와 실행력이 있다				
37. 나는 미래의 행복보다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편이다				
38. 나는 생활예술과 문화활동에 관심이 많다				
39.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즐겁다				
40. 나는 도시생활을 떠나는 꿈을 자주 꾸다				
41. 나는 소비 위주로 휩쓸리는 삶이 가끔 공허하게 느껴진다				
42. 나는 친구들과 진심의 대화를 나누고 사는 기쁨이 그림다				
43. 나는 늘 새로운 삶을 꿈꾼다				
44. 나는 텃밭에서 스스로 아채나 농산물을 가꾸어 먹으며 살고 싶다				
45. 나는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의미와 가치가있다고 본다				
46. 나는 가까이 남을 돕는 성격이다				
47. 나는 다음 세대는 자연 속에서 교육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8. 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49. 나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편이다				
50. 나는 방해나 간섭 받는 것을 싫어한다				

[출처 귀농귀촌길라잡이 국립농업과학원 최윤지 박사]



전원생활 적합도 테스트 합계점수에 따른 자가진단

점수	테스트 결과(150점)
170점 이상	전원생활을 즐길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시네요.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전원마을을 돌아보면서 준비하세요.
150점 이상	전원생활에 잘 적응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먼저 전원생활을 시작한 귀농귀촌 선배들의 조언을 받으며 계획을 세우십시오.
130점 이상	전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가족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전원생활 관련 강좌를 들으시면서 전원생활을 위한 내공을 키워보십시오.
100점 이상	전원생활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원생활을 준비해보세요. 먼저 농촌체험 마을이나 주말농장을 찾아서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100점 이하	전원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귀농·귀촌 정부지원 정책 단계별 정부지원정책 요약(2013년)

1단계 관심단계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 설치, 페스티벌 개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을 통해 준비부터 실행까지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실행단계	본격적인 귀농 귀촌 실행을 위해 품목기술·주거·농업·창업 등 실질 지원정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귀농 귀촌교육,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신속자금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정착단계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체적 준비과 실행이 이뤄지는 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부터 다양한 세제혜택까지 정착에 필요한 현장중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인기 있는 고구마

고구마는 약 2000년 전부터 중·남아메리카지역인 멕시코의 유카탄반도 지역과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오리노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에서 재배하여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조 영조39년(1763년) 10월에 조엄이 통신정사로 일본에 가는 도중에 쓰시마 섬의 사스나우라에서 고구마를 보고 그것이 좋은 구황작물이 될 것이라고 짐작하여 씨 고구마 몇 알을 부산진으로 보낸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조엄이 영조40년(1764)에 쓴 해사일기에 고구마의 모양에 대하여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감지 또는 효자마라 부른다. 대마도 사람들이 이를 ‘고코이모(孝行芋)’라고 하는 이것은 생김새가 산약도 같고 청근(무뿌리)과도 같으며, 오이나 토란과도 같아 그 모양이 일정치 않다.”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도 먹으며 삶아서 먹을 수도 있다. 곡식과 섞어 죽을 쑤고 되고 썰어서 정과(正果)로 썰어도 된다. 떡을 만들거나 밥에 섞거나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흉년을 지낼 밀천으로 좋을 듯했다.” 라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마도 사람들은 이를 ‘고코이모(孝行芋)’라 불렀다. 가난한 효자가 산에서 고코이모를 발견하고 집에 섬으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노부모를 봉양할 수 있었다는 대마도의 전설에서 온 이름이다. ‘고구마’라는 명칭은 일본말 ‘고코이모’를 조엄이 우리말로 ‘고귀마(古貴麻)’로 표시했던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재래종 고구마가 많지 않은 것은 고구마가 영양번식 작물로 품종간 상호교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품종의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풍잎 모양의 토종고구마잎



고구마잎



고구마의 꽃

간식으로 또는 보리나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기에 제일 좋았던 해남 물고구마를 이제는 어느 농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모양이 가름하고 골이 없으며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는 해남 물고구마는 밤고구마와는 달리 감미가 있으면서도 점질성이어서 주로 간식용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또 찌서 말려서 먹는 중절간 고구마로 먹거나 수확 후 저장하여 겨울철에 고구마의 전분이 당화된 다음에 날로 깎아 먹으면 그 맛이 밤맛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한다. 간식 정도로 먹기 위해 심어왔던 별 볼일 없던 고구마가 최근에는 과학의 발전 덕에 ‘최고 웰빙(well-being) 식품’으로 변모하고 있다.

메꽃과에 속하는 유일한 식용작물이며 온대에서는 이년생이지만 열대에서는 다년생수근성인 것도 있다. 길이 약 3m의 줄기는 길게 땅바닥을 따라 번으면서 줄기 밑쪽의 잎자루 기부에서 뿌리를 내는데, 그 일부는 땅속에서 커져 덩이뿌리인 고구마가 된다. 잎은 어긋나고 잎몸은 심장 모양으로 얇게 갈라지며 잎과 줄기를 자르면 즙이 나온다. 모양은 양쪽이 뾰족한 원기둥꼴에서 공 모양까지 여러 가지이고 빛깔도 흰색, 노란색, 연한 붉은색, 붉은색, 연한 자주색으로 다양하다.

고구마 중 그 육질이 찌면 구은 밤처럼 포송 포송한 분질고구마는 간식용으로서 기호성이 좋고 점질 고구마는 전분이 비교적 적으며 당분이 많고 간식보다는 반찬을 만드는 데 적당하다. 저장한 고구마를 한겨울에 날로 깎아 먹으면 수확당시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는데 그것은 고구마를 저장하는 동안에 고구마속의 전분이 단당류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고구마 저장방법

고구마는 수확 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큐어링을 해서 보관해야 썩히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 큐어링이란 32도 온도에 습도 85%를 유지하고, 환기를 잘 해줌으로써 고구마가 호흡을 많이



당진재래고구마 잎



장성재래고구마 잎



진도 1의 일모양



단풍



당진재래



백령재래



장성재래



정음재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에서 전문적인 큐어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방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3~4일 정도 고구마를 두는 것으로 큐어링 효과를 낼 수 있다. 고구마는 열대작물 이어서 85%정도의 습도와 10~17℃의 온도가 저장에 적합한 조건이다. 9℃이하에서는 병해를 받아서 부패하기 쉽고 18℃이상의 고온에서는 썩이 나기 쉽기 때문이다.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오래 보관하면 고구마가 말라서 무게가 심하게 줄기도 한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신문지로 싸서 상자에 담아 집안의 서늘한 곳에 둔다. 저장 하였던 고구마를 이듬해 봄 묘상(苗床)에 심으면 썩이 나온다. 썩을 잘라 밭에 심으면 뿌리를 내린다.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

고구마의 주성분은 녹말인데 수분 71~77%, 전분 18~25%, 당분 1~5%, 단백질 0.6~1.4%, 지방질 0.2~0.8%, 섬유 0.7~0.9%내외이다. 그 외에 비타민 C가 많으며(30mg%) 특히 안정성이 커서 삶은 후에도 70~80% 잔존하며 노란색 고구마는 베타인A의 전구체인 카로틴을 많이 함유(1000~4000IU/100g)한다. 고구마 100g당 열량은 생고구마 111Kcal, 쥔 고구마 114Kcal, 군고구마 141Kcal라고 한다.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고구마의 GI지수(혈당지수 glycemic index)는 55로 감자 90에 비해 훨씬 낮아 특히 GI 다이어트(저인슐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구마 다이어트가 인기가 높다. GI 다이어트는 인슐린 분비가 적어 혈당지수가 60 이하인 음식만 먹는 식이요법을 말한다. GI지수가 높은 음식은 체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하게 하며, 과잉 분비된 인슐린은 당노를 유발하고, 잉여 열량은 지방으로 축적시켜 비만이 되게 한다. 고구마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 조절로 적당한 음식이다. 고구마 다이어트 방법은 간단하다. 다른 음식 대신에 고구마를 먹는 것이다. 집에서 고구마를 삶거나 구워서 가장 좋은 것은 아침과 저녁에 먹는 것이다.

추천 할 수 있는 고구마다이어트 방법

아침 : 고구마 적당한 크기 1~2개와 두유 또는 저지방 우유 한컵

점심 : 현식 위주의 일반적인 밥 반공기 정도의 가벼운 식사

저녁 : 고구마 1~2개, 두유 또는 저지방우유 한 컵

고구마 한가지로만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불균형과 폭식 유발이나 요요의 위험성이 있어서 지양하고, 다이어트 기간을 길게 하면서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하여 일반 식사를 겸하여야한다.

성인병을 예방한다: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압 강화와 혈관 개선에도



제주재래



진도



해남재래



현순



수원 147호

도움을 준다. 고구마에 함유된 칼륨은 김치 등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먹어도 좋으며 고혈압과 뇌졸중 질환에도 좋다.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위암과 폐암의 예방에 좋다. 또 식물성 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변비예방 및 피부미용효과 : 고구마 속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성화하여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변비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으며 대장암의 예방효과가 있고, 장내에서 발효하여 뱃속에 가스가 차기 쉽지만 소화흡수가 잘된다.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몸속에 들어가서 항산화작용을 함으로서 피부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고 몸 안의 수분이 마르면서 젊었을 때와는 달리 배변도 점점 어려워진다. 이처럼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변비나 설사에 시달릴 때 좋은 먹거리가 고구마다.

설사나 변비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 같지만 결국 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들이다. 고구마는 장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촉진하여 설사와 변비를 막고 고치는 작용을 한다. '미인이 되려면 고구마를 먹으라'는 옛말에는 고구마가 배변을 원활하게 하여 맑고 고운 피부를 지켜 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익히지 않은 날 고구마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점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변비를 막아 주고, 고구마에 든 섬유질이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식을 하게 되면 독이 되듯이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에 20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입맛에 맞게 삶거나 찌서 먹는데 삶은 것은 황달에 잘 들고, 쥔 것은 피로회복과 식욕증진에 효과가 있다. 어린이가 실수로 이물질들을 먹었을 때 쥔 고구마 또는 군고구마를 채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먹으면 변에 섞여서 이물질이 나온다. 등창이 생기면 고구마를 찌거나 삶은 국물로 환부에 찜질을 한다. 또 몸에 열이 날 때 까맣게 탄 고구마를 달인 물을 먹으면 된다. 임산중독에 삶아서 먹으면 좋다.

주요토종

고구마는 도입된 역사가 길지도 않지만 영양체 번식 작물이기 때문에 품종의 분화가 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낮의 길이가 열대지방에서보다 길어서 단일성인 고구마가 꽃을 피우기가 쉽지 않아 품종간의 자연교잡은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구마의 토종은 많지 않다. 1938년부터는 수원 농사시험장에서 고구마 육종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신품종으로 보급되어 토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작물시험장 목포지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고구마 재래종을 수집한 결과 진도지방에서 진도1, 진도2, 진도3, 진도4 등 4종, 해남지방에서 해남재래1, 해남재래2, 해남재래3, 해남재래4 등 4품종이 수집되었고, 백령재래, 현순과 장성재래, 정음재래, 제주재래, 당진재래가 수집되었으며 이들 단풍잎모양을 하고 있는 단풍1, 단풍2 등 2품종을 포함하여 16종의 고구마 재래종을 보존중이다.

허브의 모든 것 원평허브농원

글 김지태 사진제공 원평허브농원

아름다운 허브 정원 속에서 허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연구하고 허브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원평허브농원을 소개한다. 허브의 종류와 특성, 구조와 기능, 허브의 생육, 허브의 쓰임과 가공 등 허브의 세계를 자녀들과 함께 재미있게 직접 체험 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다.

경기도 화성시 매곡면 원평리 181-6 www.herbfarm.co.kr
개입은 언제든지 방문 가능, 10명 이상 단체는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허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허브의 개념을 정확히 한정짓기엔 모호한 면이 있다. 학자들에 따라 개념 정의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온대지방을 원산으로 하면서 향기가 있으며 인간에게 유익한 모든 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허브의 어원은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 'Herba'에서 유래했다. 즉 잎, 줄기, 뿌리, 꽃 등을 허브의 의미에 포함하며 그 성분이 식품이나 음료 속에 보존용, 향신용 또는 건강증진제로서 첨가되는 식물과 식품, 음료 외의 제품에 향수, 화장, 세정의 효과를 기대하여 이용되는 식물의 전부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허브에 대한 개념은 외국에서 도입된 식물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우리 선조들도 이미 수천년 전부터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허브를 이용해 왔다. 쑥, 냉이, 씀바귀, 곰취 등 봄철 식단에 반찬으로 이용되는 산야초들과 한방 처방전에 들어가는 식물들도 넓게는 모두 허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라벤더의 효능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박동을 천천히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다. 라벤더는 뛰어난 진정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불면증을 예방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며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라벤더향은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어서 천연방충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드라이허브의 효능

드라이허브는 텃치나 인퓨징 등 효과가 좋아 비누나 화장품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드라이로즈마리는 건성과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 피부에 탄력을 주고 피지를 조절하며 모공을 수축시켜준다. 드라이바질은 지성피부에 여드름 살균에 효과가 있다. 드라이라벤더는 피부재생과 세포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민감성 피부에 추천할 만하다. 그밖에 스피아민트나 카렌둘라, 케모마일, 펜넬 등 드라이허브들도 피부진정과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아로마테라피 효능

아로마테라피는 식물의 향과 약효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찾게 해주는 자연요법을 말한다. 아로마테라피는 동서양 모두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의 한방치료도 일종의 아로마테라피라고 할 수 있다. 주로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다. 주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강화, 세포재생 등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치료 등 질병 보조치료 요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전문영농인 교육 프로그램

원평허브농원은 2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영농인이자 허브전문가가 운영하는 농원이다. 현재까지 40,000명 이상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했고 연 인원 5,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허브전문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기는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다.

허브에 관한 다양한 지식 체험 프로그램

만약에 식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식물은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생명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진리를 자연스럽게 일깨우고 식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 보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원평허브농원은 자연스런 배움터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이다.

화성시 농촌교육농장이기도 한 원평허브농원에서는 다양한 허브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허브정원을 조사하고, 관찰하며 허브에 대한 모든 특성과 비밀을 알아볼 수 있다. 딱딱한 교육방식이 아니고 허브 비누만들기, 허브향을 이용한 아로마테라피, 허브비빔밥 만들기 등 재미있는 체험 위주 교육이란 점이 특징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개인, 단체 체험은 물론 영농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간
새로운 가치창조, 그리고 감성경영 -원평허브농원 운영사례 중심으로	농업인 도시민	20~	1일
체험, 교육, 생활원에 바로 알기	누구나	20~	1일
농과계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	3~	7일
농업대학 재, 졸업생들을 위한 현장강의	학생	3~	1일
귀농, 귀촌	누구나	20~	1일반복
가족형 체험(허브로 제품만들기)	가족단위		

가족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허브 분화, 생활용품, 포푸리, 방향제, 아로마테라피용품 등 다양한 허브관련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강의와 체험이 상시 가능하다. 단체로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밖에 분화, 이끼, 자갈, 새, 곤충 등을 이용한 허브 미니정원 만들기, 허브분갈이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전화로 미리 안내를 받고 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도심 속 재미난 텃밭투어

글 이지영 (여성환경연대)



서울에서도 텃밭을 가꾸며 흙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부터 옥상텃밭, 상자텃밭, 공원텃밭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발견하는 가치와 의미도 나름 제각각이다. 그러나 우리 동네 어디에 어떤 텃밭이 있는지 평소엔 시간과 품을 들이지 않으면 궁금해도 찾아갈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여성환경연대의 '서울도시농업투어(일명 텃밭투어)'는 시작되었다. 올해 봄과 가을 총 5차례 진행된 텃밭투어는 텃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솔한 도시농사 이야기를 듣고,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로 되었다. 다음은 텃밭투어를 진행하면 발견한 서울에 숨겨진 보물 같은 텃밭들이다.

홍대텃밭다리

유행과 소비문화가 넘쳐나는 홍대 인근 가톨릭청년회관 옥상에 위치해있다. 텃밭다리에는 대안적 삶의 양식이자 하나의 놀이로 농사를 바라보는 청년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버려진 악기와 상자 등을 재활용한 특별한 텃밭 디자인을 선보이며 빌딩으로 둘러싸인 옥상 한 가운데서 휴식과 치유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현재는 로컬 푸드(Local Food) 브랜드 밌(MIM: Made In Mapo)을 만들어 도시농부 장터 '마르셰@'를 비롯해 인근의 레스토랑에 공급하며 자급적 삶의 기술을 실천하고 있다.

주소 : 마포구 동교동 158-2번지 옥상

facebook.com/groups/hongdaefarm

합정텃밭대륙

홍대텃밭다리에 이어 합정동 주거 지역의 복합문화공간 옥상에 만들어진 텃밭이다. 도심 속, 정이 그리운 '나 홀로족'을 위한 텃밭으로 텃밭상자의 모양도 2인이 함께 경작할 수 있는 땅콩모양이다. 텃밭대륙에서는 도시에서 혼자 주거하는 사람들이 텃밭으로 나와 건강한 먹거리를 행하며 농사와 예술이 만나고 있다. 현재는 홍대텃밭다리와 연계한 농부학교워크숍이 봄, 가을 정기적으로 열리며 텃밭파티, 농작물 수확잔치 등의 행사가 농한기 틈틈이 열리고 있다.

주소 : 마포구 합정동 357-7번지 옥상

facebook.com/groups/hongdaefarm

문래도시텃밭

문래동 철공소 단지 옥상에 조성된 텃밭이다. 2011년 철공단지, 문래예술창작촌 예술가, 아파트 주민이 모여 힘을 합쳐 문래도시텃밭을 일구며 어둡고 칙칙한 철공소 단지를 이야기가 꽃피는 공간으로 바꾸어냈다. 현재 그림자 연극, 빛물지킴동 만들기, 부엌놀이, 달빛옥상파티, 전직 은행장의 재무상담 등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기발한 재주 나눔 릴레이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주소 : 영등포구 문래가 54-41번지 옥상

facebook.com/mullaefarm

갈현텃밭

은평구에 위치한 이 텃밭은 그란벨트 지역을 보존하면서 조성된 텃밭으로, 정식명칭은 '갈현도시농업공원'이다. 남산 공극장 이전 예정지로 개발 위기에 처해 있다가,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남아 현재의 텃밭 모습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갈현텃밭에서는 도시농부학교, 적정기술워크숍, 추수감사제 등의 활동을 하며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주소 : 은평구 불광동 458-1번지

cafe.naver.com/galhyeonfarm

상암두레텃밭

본래 마포구청 소유였던 공간으로, 공공텃밭 지정을 허가해 주지 않아 마포구의 도시농부들이 불법으로 게릴라 경작을 하며 싸워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마포구의 도시농업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의 상암두레텃밭으로 모습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공동 경작공간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은 총 65명이며, 그 외에 마포도시농부 수감생과 운영위원회를 위한 실습 밭이 별도로 있다. 생태순환유기농법을 원칙으로 생태 텃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 50%이상을 매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주소 : 마포구 상암동 1691번지

cafe.naver.com/mapofarm

노들텃밭

한강 위 노들섬에 위치한 서울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으로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생태순환유기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약 7명 정도가 팀이 되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약 600구좌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들텃밭의 핵심은 '토종'이다. 토종논과 토종밭이 있어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토종노래기, 토종벼축제, 논두렁콘서트 등은 노들텃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다.

주소 : 용산구 이촌동 302-146번지

facebook.com/nodeulfarm

한내텃밭

옛 대한전선의 유류 부지에 만들어진 텃밭이다. 서울 외곽지역의 주말농장을 드나드는 주민이 많은 정도로 도시농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 금천구 주민을 위해 2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두고 조성되었다.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품물소모임, 목공소모임, 텃밭연구모임, 모종연구모임 등 소모임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기마다 호미걸이축제, 텃논두레단 벼축제 등의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주소 :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cafe.naver.com/geumcheoncityfarmercafe

여성환경연대는 환경오염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안생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과 도시, 생산과 소비의 분절된 현대문명을 넘어 도시에서 실천 가능한 공동체텃밭, 학교텃밭, 병원의 희망텃밭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텃밭투어와 관련한 소식은 여성환경연대의 홈페이지(www.ecofem.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아이도 일찌감치 가든인으로 키워볼까?

전국 환경동아리단체 '글로벌에코리더'란?

"아주 가까운 미래에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녹색기술 및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대열에 몸을 실어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작년 방한했을 때 한 심포지엄에서 강조해서 했던 말이다.

지금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가든인의 독자라면 벌써 삭스교수가 말하는 '성공대열'에 반쯤은 올라선 셈이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세대가 아닌 차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조기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물론 가든인 독자를 부모로 둔 아이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일찌감치 받고 있다고는 생각된다. 하지만 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환경과 친숙해지는 법을 전도하는 환경전도사가 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리더'란 말은 아무데나 붙는 말이 아니다. 우리아이가 환경을 알리고 지키는 것에 앞장서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 명의 '환경리더' 부모로서 마음이 뿌듯해 질 것이다.

글로벌에코리더란 환경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사)에코맘코리아와 환경부가 함께 주관하여 UNEP(UN환경연합)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중 하나로, 학생들이 지구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과 실천방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환경외교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에코리더는 2012년 12월 접수를 시작하여 이번 달인 1월 10일까지 단원 모집을 마치며 학교별로 10명의 단원을 모아 동아리단위로 신청을 하면 된다.

모집된 학생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1팀당 20명의 에코리더를 선발하여 대학생 '에코서포터즈' 2명과 함께 한 팀으로 1년간 활동 하게 된다. 또한 에코리더들의 부모님을 위한 '에코부모' 교육 및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Global
Eco Leader

Eco Leader

2012년의 에코리더

4월



**지구의날 행사 및 에코리더
지구를 위한 움직임**
Mobilize the Earth
전세계 174개국과 함께하여 진행한 지구의
날 행사와 그리고 제 2기 글로벌 에코리더

6월



도전그린벨

8월



에코리더십 캠프
2012글로벌에코리더 코오롱스포츠 '에코
리더십캠프'
친환경 생태체험과 아웃도어 캠핑을 하
며 환경에 저영향의 방법을 배우는 에코리
더십캠프!

5월



환경 보전 체험 프로그램
환경보전체험하기
자원호수시설 및 그린홀플러스
인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시설 견학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프로그램

7월



에코리더 캠프(물길·동물원캠프)
1박2일의 에코캠프 동물원 대탐험 / 물
길·별자리
도시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동물
원, 물길·별자리캠프! 자연의 소중함을 느
끼며 올바른 가치관을 느끼는 캠프

9월



에코맘캠프 / 제주세계자연보호총회
에코맘 캠프와 WCC 세계자연보전 총회

글로벌에코리더활동은 2014년 3월을 시작으로 2015년 2월까지 총 1
년단위로 진행되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2박3일 캠프형식으로 진
행되는 전국 '국제기구 (UNEP)와 함께하는 모의총회' 및 환경, 건강 그
리고 녹색습관이라는 3가지 테마 안에서 지구환경의 소중함을 깨닫
고, 친환경 습관을 배양하는 '작은 지구캠프' 등이 진행된다.
특히 UNEP와 함께하는 국제기구모의총회캠프는 2박 3일 캠프 형식
으로 국제환경정책 및 환경분야 리더십과 관련한 교육, 토론 방식으
로 외국 각지에서 온 청소년과 함께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서로
의 의견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한 층 높일 수 있
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4월 지구의 날에는 환경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직접 환경캠페인
을 만들고 홍보를 하며 사회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앞장서
는 역할을 하게 된다.

1년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는 학교의 대표 에코리더로서 1년간 변화된
본인의 습관을 바탕으로 '에코포드폴리오'를 작성하며 이 중 우수한
실천사례를 보여준 에코리더들에게는 환경부 임명장, 에코맘코리아 수
료증, 환경부장관상, 에코맘코리아상, 교육감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및 '글로벌 에코리더' 신청은 www.ecomomkorea.org 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는 eco@ecomomkorea.org로 신청서를 접
수하면 된다.



글 황주리 기자
사진출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귀농을 넘어 농식품큐레이터에 도전하자!

요즘은 '큐레이터'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큐레이터'의 사전적 의미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제정 확보, 유물 관리, 자료 전시 및 홍보 활동을 하는 이를 '큐레이터'라 일컫지만 최근에는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전문가의 범위 및 분야가 점차 넓혀져 가고 있다.

올 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식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서울식생활시민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생활기관으로 지정된 것의 일환으로 신농식품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농식품큐레이터 교육을 시작했다.

농식품큐레이터란 농식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고객 소통 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식품전문가를 일컫는 용어다.

현재 한국에서는 농가에서 제아무리 뛰어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품질의 가치를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가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홍보, 마케팅 기능이 수반되지 못해 대부분 유통업체들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생산물 판매 이득 또한 이들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자리 잡혀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작 땅 흙려 지는 값진 노력의 대가를 농가가 아닌 유통 외 기타관련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큐레이팅'하는 지역농산물큐레이터가 일찌감치 농가와 외의 협력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활발한 홍보, 마케팅활동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농가를 대신하여 통괄적인 농산물 소비촉진을 겨냥한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지역의 농산물큐레이터들이 그 핵심 역할과 기능을 한다면 농산물을 심은 농부들의 노력의 가치가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농산물식품공사에서 진행하는 농산물큐레이터는 제 1기 모집을 올 해 12월에 모집을 마감했다. 금 번 농식품큐레이터 교육대상은 제도의 첫 시범사업으로써 농산물 유통인 위주로 선정했지만 차후 기수를 모집할 때에는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경합 시 우선선발 대상으로 품목별 대표 경매사 및 종합평가 우수 중도매인, 식문화 관련 교육 유경험자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큐레이터 교과내용으로 푸드트렌드 익히기, 농식품 마케팅, 푸드 페어링 (궁합), 농식품재료학, 농식품 브랜드 및 디자인 마케팅,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산물큐레이터 양성 외에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식생활교육 및 식문화 전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사의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터놀이', '제철채소과일 체험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명사가 전하는 음식이야기', '제철 요리 교육', '식재료 선택 교육' 등이 있다.

'농식품큐레이터' 교육은 1기 대상자인 농산물 유통업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생 특성에 맞게 이원화 하여 점차 확대 진행될 예정이다.

제2기부터는 그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모집 된다고 하는 만큼 현재 농산물을 가르거나 최근 귀농을 한 가든인, 혹은 나만의 텃밭 가꾸기에 흥미를 가진 가든인 이라면 꼭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농산물큐레이터' 교육 관련 공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http://www.garak.co.kr>) 및 서울식생활시민학교 블로그 (<http://blog.naver.com/garakfood>)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다.





정원의 아홉가지 색 초화류

일년에 두 번 정도 꽃 관련업체의 초화류 식재 디자인 심사를 하러 간다.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초화류 식재에 대한 디자인 개념은 부족하다. 디자이너가 초화류를 선정해서 배치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왜 이 장소에 이 꽃들을 이러한 모양으로 심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정상 아직 초화류는 대규모 조경의 지피식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생태적으로 적합한 식물을 적소에 대량으로 식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 강한 자생식물 중심으로 선정되거나, 화려한 꽃이 피는 초화류는 일년초 중심으로 계절별로 가로변 화단에 식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꽃박람회와 같은 행사에는 전시기간동안 그 시기에 구할 수 있는 꽃이면 별다른 고려 사항 없이 식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정원용으로 초화류를 아름답게 식재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얼마 전에 4계절 정원을 조성하는 업체에서 초화류 디자이너를 구한다는 연락이 왔다. 매년 계절별로 화단의 꽃을 바꾸는데 그동안 초화류를 너무 단순하게 심었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미적 감각이 있으면서 초화류를 잘 아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하였다.



초화류는 다년초와 일년초를 구분하여 식재하는데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정원의 초화류는 다년초가 중심이 된다. 다년초 중 특성이 뚜렷한 다년초는 분리하여 구근류, 고사리류, 그래스류, 암석원 식물, 수생식물로 구분한다. 초화류를 선정할 때는 공간의 용도와 식재 환경, 그리고 시각적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초화류는 화분용, 화단용, 목본식물 하부식재용, 지피식물용, 그리고 다양한 양식과 목적의 정원용

으로 이용되는데, 토양, 광, 수분, 바람 및 온도별로 그 식재 환경의 특성에 맞는 식물을 선정해야 한다. 초화류의 시각적 특성은 ① 형태 ② 초장 ③ 초폭 ④ 질감 ⑤ 화색 ⑥ 개화기 그리고 예외적으로 ⑦ 향기까지 7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실용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장, 화색, 개화기이다. 초화류의 형태도 중요한 시각적 특성이지만 정원에서 군식하는 초화류는 개별적인 형태보다 초장이 더 중요하며 초장,



화색, 개화기를 만족하는 식물들 중 다음 단계로 형태나 질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원에서 초장은 대부분 고·중·저로 나누는데 다년초나(고: 120cm 이상, 중: 60-120cm, 저: 60cm 이하), 일년초나에 따라 나누는 기준 높이가 달라지고 또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초목은 형태와 함께 고려할 요소로서 초화류의 수량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초화류의 시각적 특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색이다. 초화류의 중심은 꽃이고 꽃은 색을 의미한다. 꽃의 색은 무수히 많으나 사람 눈에 잘 띄고 많은 색을 가진 꽃을 중심으로 색을 구분하는데 사람마다 화색을 나누는 기준은 다르지만 외국에서 가장 흔하게 나누는 초화류의 화색은 은색(Silver), 흰색(White), 녹색(Green), 노랑(Yellow), 주황(Orange), 빨강(Red), 분홍(Pink), 보라(Purple), 파랑(Blue)의 9개 색이다. 또한 이들을 화색이라 표현하지만 이 중 은색은 잎의 색이며 최근 육종되는 초화류는 꽃 외에도 잎색을 중심으로 육종된 것들이 많아 노랑, 녹색, 보라는 잎의 색까지 포함한다.

외국에서 화색을 설명할 때는 12색상환을 참고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12색상환은 1차색인 빨강, 노랑, 파랑과 이들을 서로 혼합한 2차색인 주황, 녹색, 보라와 1차색과 2차색을 혼합한 3차색



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이러한 색에 흰색을 혼합한 명청색(tint)과 검정을 혼합한 암청색(shade)을 포함한 색상환도 있다. 9가지 화색은 빨강, 노랑, 파랑의 1차색과 2차색인 주황, 녹색, 보라의 6가지 색과 빨강의 명청색인 분홍을 중심으로 그 색들의 여러 명청색과 암청색, 그리고 인접색을 포함하고 있다. 12색상환 외 흰색과 은색(회색)의 색이 있는데 은색은 라벤다, 램스이어, 산톨리나, 패랭이 등의 잎색이다.

국내에서 식물의 화색을 표현할 때는 식물도감마다 색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파랑과, 보라, 자주의 색이 혼동된 경우가 많고 외국의 참고자료도 비슷한 상황이다. 화색은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대략 어느 범주의 색에 포함시켜야 할지 고려해서 초화류의 꽃과 잎의 색을 이용해 일별로 정원의 색을 원하는 방향으로 연출해보자.

아직 국내에는 화색 분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고 초화류의 색과 관련한 식재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지만 화색을 고려한 디자인에 대한 시도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아래 색을 참고로 초화류를 이용할 때 초장, 화색, 개화기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보자.





호주건조지역식물원 일부

호주의 메마른 사막의 한 복판에 가보면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불모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온도가 극한 상태로 올라가고 가뭄이 10년 동안 지속되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식물체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호주 남서부 사막지역 생태계는 매우 연약하여 파괴되기 쉽고 복잡하며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막에도 꼭 가볼만한 식물원이 있다.

호주건조지역식물원은 공식적으로는 1993년에 개원하였지만 개원과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포트 아우구스타Port Augusta 시의회의 공원정원분과 위원장인 존 쉼 John Zwa가 1981년에 최초로 식물원 설립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은 수용되어 250ha 면적의 해안가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시의회와 아틀레이드 식물원, 어론 등의 도움으로 1983년에 식물원 설립안을 채택하였다.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황환주교수



건조지역에 적합한 모델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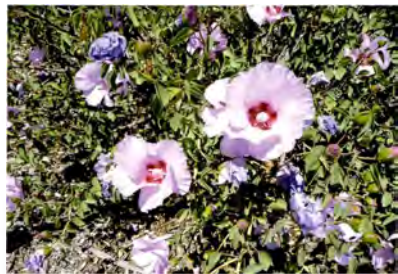


(상)건조지역에 적합한 모델정원, (하)잔디나무 Grass Tree

다음해에 식물원 설립을 위한 '친구들' 모임이 형성되고 기금마련 및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활동을 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처음으로 정식 직원이 채용되었으며, 방문객 센터와 같은 식물원의 주요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에레모필라Eremophila 속 식물과 지역 토속식물들의 본격적인 수집을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주정부 및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남호주광산협회와 식물원친구들이 공동으로 애리드스마트 전시원AridSmart Display gardens을 개보수하고 여러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거나 신축하였다. 2006년도에 폴타임 큐레이터가 임용되었다. 현재는 포트 아우구스타Port Augusta 시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식물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식물원은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이고 호주 남부지방의 식생을 보여주는 유일한 식물원이다. 총면적은 250ha정도로 매우 넓은데 개발지역, 미개발지역, 연구지역, 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스펜서Spencer 만의 해안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회색 멧그로브를 비롯한 해양 생태계와 건조한 사막지대의 생태계가 교차하여 풍부한 생물상을 보여주는 것도 이 식물원의 특징이다.



무궁화속 식물



Australian Arid Lands Botanic Garden



애리드스마트 전시원에서는 물을 아주 적게 소비하면서 일반 가정집 정원에 적용할 수 있는 6개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여섯 개 주제원 명칭은 사막정원Desert Garden, 말리원Mallee Garden, 건조지역정원Arid Courtyard Garden, 에레모필라정원Eremophila Courtyard Garden, 플린더스원Flinders Ranges Garden, 해안식생원Coastal Garden이다.

이 애리드스마트 전시원에는 연중 강우량이 300mm 이하인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서 다양한 토성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이 잘 되며, 관광가치가 높은 식물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즉 철저하게 물, 돈 및 식물을 절약하는 정원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식물원 내에는 총 12km정도의 관람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에레모필라 관람로 Eremophila Loop(800m, 30분)에는 물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아름다운 정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레모필라 전시원을 비롯하여 원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하여 온 식물 및 희귀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곳곳에서 붉은색 모래언덕과 호주 사막지대의 식물과 동물을 만날 수 있고, 플린더스 관람로Flinders Ranges를 포함하고 있는 관람로는 1.4km 길이에 약 40분정도 걸린다.

적벽관람로Red Cliff Loop(4.5 km, 2시간)는 띄엄띄엄 숲이 있는 길로서 모래언덕 식생과 더불어 스펜서만Spencer Gulf 해안가에서 자라는 맹그로브 군락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스펜서만에서 놀고 있는 돌고래

무리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호주건조지역식물원은 호주의 대표적인 건조지역에 조성된 식물원으로서 여느 식물원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 아름다운 꽃과 울창하게 자란 큰 나무를 기대하고 방문한다면 실망을 금치 못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메마르고 햇살이 내려쬐는 사막지대의 황량함을 아름다움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지참하는 것은 필수이다. 방문객센터에는 해설안내판을 중심으로 영상물 상영관, 기념품, 정원관련 도서, 토착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 있고, 커피나 음료수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블루부시 카페가 있다.

식물원 총면적은 240ha로 매우 넓으며, 원장, 큐레이터 1명, 식물기록원 1명, 원예담당 5명, 행정담당 2명 등이 식물원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순수하게 호주 자생식물만을 수집, 증식 및 연구하고 있으며 서식지외보전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방문객을 위한 해설안내 프로그램, 방문객 센터, 다양한 해설안내판,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식물원후원회와 25명 정도의 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55,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일몰 때까지 문을 열어 입장료는 무료이다. 방문객 센터와 블루부시 카페는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단체방문객을 대상으로 식물원 해설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 봄으로 봄을 불러오는 바람꽃

얼어붙은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꽃

잔설이 채 녹지 않은 이른 봄에 차갑게 얼어붙은 땅을 비집고 올라와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있다. 바로 '바람꽃'이다. 바람꽃은 그 종류도 다양하며 생김새도 각양각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름이 지닌 느낌처럼 꽃 전체가 바람을 따라 흔들릴 정도로 작고 어려며, 바람처럼 일찍 피었다 바람처럼 빨리 사라지는 꽃이다.

가장 여성스럽고 한국적인 미를 지닌 꽃

봄에 피는 대부분의 꽃들이 여성스럽긴 하지만, 이 바람꽃 종류들이야말로 가장 여성스럽고 한국적인 고운 미(美)와 성품을 가득 지닌 꽃이라고 장담을 하고 싶다. 이 유인즉 외적으로는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겨움과 순박한 미를 갖추었고, 내적으로는 차가운 땅을 뚫고 나오는 강한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발견지 지명을 따서 이름 지어진 변산바람꽃

야생 산지 봄꽃들의 태동은 바람꽃 무리들로부터 시작이 된다. 전라북도 변산반도 일대에서 이 꽃이 처음 발견된 후, 발견지 지명을 따서 이름도 '변산바람꽃(Eranthis byunsanensis B.Y. Sun)'이라고 지어졌는데, 겨우내 쌓였던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이 꽃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게 되면, 비로소 그 해의 봄은 시작이 된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와 특징이 가장 유사한 '너도바람꽃'이 산지 곳곳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강원 지역의 산지에서는 '홀아비바람꽃'이 봄의 전령사 노릇을 한다.

예쁘게 촬영을 하기 어려운 꽃

봄을 예비하는 여러 종류의 바람꽃들은 각기 조금씩 특징을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키가 모두 작으면서 꽃 색이 희며, 1개 또는 아주 적은 수의 꽃이 줄기 끝에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은, 다른 식물의 잎이 돋기 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암만 공들여 촬영을 해도 좋은 사진을 얻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꽃 사진은 주변이 녹색일 때 가장 예쁘게 찍히는 법인데, 바람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시기는 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흰색'의 세상이거나 '갈색'의 대지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바람꽃 무리들

이제, 봄이 점차 깊어지면서 산지에는 숲바람꽃, 회리바람꽃, 세바람꽃, 나도바람꽃, 쌍둥이바람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한여름에 다다르면 전망이 좋은 높은 산에서 맑은 자라 위엄을 뽐내고 있는 바람꽃을 강원도 일대의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다.

바람꽃의 전설

바람꽃 종류의 속명(屬名)은 '아네모네' (Anemone)인데, 이 속명을 얻은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옛날 꽃의 신 '플로라'에게는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시녀가 있었다. 그 시녀의 이름은 '아네모네'였다. 그런데 플로라의 남편인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그 '아네모네'를 그만 사랑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플로라는 아네모네를 멀리 내쫓아버렸다. 하지만 제피로스는 바람을 타고 그녀를 곧 뒤쫓아 가 둘은 깊고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본 플로라는 질투에 불탄 나머지 '아네모네'를 꽃으로 만들어 버렸다. 슬픔에 젖은 제피로스는 언제까지나 아네모네를 잊지 못하고 매년 봄이 오면 늘 따뜻한 바람을 보내어 '아네모네'를 아름답게 꽃피운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바람꽃들은 '아네모네(Anemone)'라는 속명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아네모네(Anemone)'는 그리스어로 '바람의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바람의 딸, 바람꽃이 피어나면 봄이 머지않음을 알게 된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러오는 바람꽃

바람꽃이 피어난 순간에도 여전히 차가운 공기와 공공 얼어붙은 땅위의 찬바람은 조금만 더 견디어 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다. 조금만 견디면 긴 겨울이 지나고 생명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봄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고해 준다. 비록 봄은 여러지만 강건한 생명력으로 활력과 희망이 넘실거리며 봄을 불러오는 우리 꽃이다.

태백바람꽃

홀아비바람꽃

회리바람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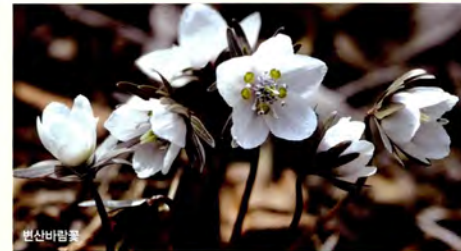
나도바람꽃

너도바람꽃

참바람꽃

만주바람꽃

바람꽃



변산바람꽃



숲바람꽃

사진·글 이영호의 야생화(http://www.skyspace.pe.kr)



Sissinghurst, White Garden

Vita Sackville-West (1892-1962)



Vita (Victoria) Sackville-West는 제 3 남작 Sackville의 딸이었다. 그녀는 켄트주 Knole 집에서 1892년에 태어났다. 1913년에 그녀는 외교관과 언론인, Harold Nicolson 결혼하였다. 이들 부부는 1930년에 Sissinghurst castle 성곽을 매입하였고, 이곳은 1930년에 파괴된 엘리자베스 시대 영주 저택을 구입하여 정원을 재창조하며 수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이곳 Sissinghurst 정원은 그들 부부의 사랑과 개성이 돋보이는 독창적이며 시각적 표현의 정원문화를 유산물로 남겼으며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정원 애호가들의 정원 방문지로 사랑을 받는 곳이다.

Harold Nicolson은 아내의 심오하며 감성이 풍부한 식재의 마스터 플랜에 건축가로서의 조언과 가이드라인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Sissinghurst정원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만든 고전적인 모습을 사랑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온화하고 미묘한 색의 조화와 하모니가 그 시대에는 비공식적인 정원의 색상 배열인 듯 하였으나 후일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색의 조화를 이루었다. 부부는 정원은 광범위한 전망을 바라보는 구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친밀감을 이루는 정원의 공간을 제공하기를 원하였다. Sissinghurst정원으로 지금은 유명한 White Garden(흰색 정원), 장미 정원, 과수원, 별장 정원 및 안식처로도 유명한 공간을 이루는 정원을 만들었다. 2차세계대전 후 정원은 복원되었으며, (수년간 전쟁에 떨어져 파편을 치우는 작업이 계속됨) 복원된 Sissinghurst정원에는 방문자의 재미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정원을 즐기기도 하였다.

Vita Sackville West 는 전문 정원사 아니지만, 이전에는 시인 및 작가가 직업이



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신문 The Observer에 가드닝 기사를 기고했으며 그녀는 작고 1년 전까지 14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하여 계속 원예전문 기사를 썼다. 그녀의 정원에 대한 열정은 시대에 앞선 발상으로 대중과 함께 나누는 정원에 실용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으로 대중과 소통을 이루며 기사를 통하여 대중과 정원을 함께 나누는 그 시대 매우 대중적인 글로 정원문화를 이끌어가고록 헌신을 다하였다.

그녀는 결혼 전에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은 것이 없었으므로, Vita Sackville West 은 많은 시행 착오에 의해 가드닝을 배웠고, 그녀의 첫번째 정원은 부부가 1915년~1930년 동안 거주한 근처의 Long Barn, Sevenoaks, Kent 에서 실험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 장소인 Sissinghurst정원은 남편 Nicolson이 정원의 통로 길, 자연담장과 울타리, 공간을 분배하는 벽의 건축물을 모두 건축가의 시각으로 재작업 하였으며, 이것은 첫 번째 Kent 가든에서 실수가 많았다면, 두번째 Sissinghurst 정원에서는 실수가 거의 없는 건축적 시각의 정원 평면도를 그린 업적이 크다고 볼수 있다. Vita Sackville West는 아주 확고한 원칙을 세워 정원의 모습을 형성 했다. 그후 이 첫 번째 시도는 식물이 성장 후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잔인한 결과물을 주었으며, 두 번째는 너무 깔끔하고 정비된 정원은 식물의 고사를 가져오며 자연발아 종자식물이나 어디든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야생화 정원으로 혼합 재배를 터득하며

자연의 시간을 통하여 지식을 얻었다. 셋째, 정원 속에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로 건축적 미학의 설계, 식물의 컬러 식재 계획 및 계절적 식재 계획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어떤 비평의 단어도 어울리지 않는 Sackville 서쪽에 최상의 업적을 달성한 1원색 식물 색상의 Sissinghurst 정원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 흰색 정원의 창조는 가든속(Gardenin)문화에서 또 다른 가든 문화를 창조한 것으로, 그녀의 창의력은 거대한flowerbed에서 식재의 높이, 식물의 종 그룹의 하모니등을 완벽히 즐기며 재창조한 정원이다. 그리고 올바른 색상의 합성을 시도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연속으로 농축된 마음의 색을 표현한곳, Garden-ing 안에서 미치도록 즐긴 업적이 최대의 효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지만, Sissinghurst 정원은 현대에 와서는 healing정원으로 통할 만큼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제 현대 영국 정원 전통의 화신으로 명성을 올리는 Sissinghurst의 Sackville West와 Nicolson의 정원은 영구적인 유산과 평화와 아름다움의 피난처 이다.

1월의 하얀 정원의 소개는 추위를 느낄 수도 있으나, 겨울 정원의 흰색을 즐기며, 반대로 여름의 흰색 정원을 소개한다. 앞으로 정원의 식재와 디자인은 다음기회에 상세히 올리도록 하며 사진을 허락한 영국의 사진작가 Dave Parker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

Sissinghurst, White Garden



정원문화의 부활, 한국정원문화협회 발족

한국정원문화협회가 16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원문화의 부활을 선포했다.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열린 창립총회는 단순히 한 단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 정원문화로 향하는 조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기준점으로 회자되고 있다.

한국정원문화협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정주현 대표(경관제작소 외연)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가고 질적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며 문화로서 정원의 가치를 강조했다. 서두에 그는 협회창립을 조경의 주 업무인 정원에 대한 틀을 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단법인을 추진하게 된 것도 문화적 접근을 통해 정원을 육성시키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조세환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 전공)는 ‘근대사와 함께 잃어버린 한국 정원의 역사와 문화를 부활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있는 것’이라며 한국정원문화협회 창립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조세환 교수 역시 양적성장 시대의 끝을 알린 정주현 회장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지금까지 한국조경 태동기와 함께 40년을 이끌어왔던 강력한 동력원이 소진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의 조건과 적용여부에 따라 유연히 창발적인 혁신과 진화가 일어나는, ‘열역학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로, 협회가 그 법칙을 최초로 시행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리라 내다봤다.



발기인



협회 임원진

나아가 한국정원문화협회의 창립의 시작으로 ‘한국정원문화학회, 산림조경학회, LID학회 등’ 정부 각 부처마다 조경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세부 조직을 창설해 가칭 ‘한국조경연합회’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작동시키자고 제안했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의 홍광표 회장은 “정원은 조경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지만, 너무도 당연해 우리가 안이한 인식을 가지는 동안 인접 여러분야가 눈독을 들이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정원문화협회의 창립은 정원이 조경의 기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고 조경이 정원에 연관된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정원문화협회는 관련 전문가들로 회원들을 구성했던 단체와 달리, 일반인에게도 문화를 개방하기로 했다. 소통을 통해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단체명에 ‘조경’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정주현 회장은 “보다 넓은 의미의 정원문화를 강조하기 위해 고심 끝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원문화협회가 조경과 별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조경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취지, 진취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총회에서는 정관, 임원 선임, 2014년 사업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초대회장에는 정주현 회장((사)한국조경사회)으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의 이택주 위원(한택식물원 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감사는 김은성 대표(유림조경기술사무소)가, 수석부회장으로 최선현 대표(씨토포스)가 각각 선임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진승범 대표(이우환경디자인), 박공영 대표(우리꽃), 임춘화 대표(아이디얼가든), 김용택 소장(kn1환경디자인 스튜디오), 노영일 대표(에진)가 각각 임명됐다.

앞으로 한국조경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통조경학회와 협력강화를 통한 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을 비롯하여, 가든디자인과의 만남, 정원 아카데미, 정원 답사, 정원포럼, 정원 정책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문화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정원문화’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주현 회장은 “정원이 곧 조경이고, 정원문화는 조경의 영원한 키워드라며, 앞으로 협회는 정원이 있는 주거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정원문화 창달을 위한 정부와 시민 협력을 주도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단체 발족의 주된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창호 기자 라멘트제공



충남 국립생태원 전시관 임시개관 마감

글 황주리 기자
사진 국립생태원

지난 해 12월 준공 이후 약 7 개월간의 임시운영기간을 거친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이 정식 개원 이전 단기개관 마감을 했다.

준공 이후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 해 3월부터 9월까지 임시운영기간으로 정해 대국민 개방을 실시한 국립생태원이 정식 개원 이전 동식물과 시설관리의 보완을 거쳐 내년 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전했다. 올 해 임시 개방기간인 총 7개월 동안 국립생태원은 총 1만 5760명의 관람객을 맞았을 정도로 정식 개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국립생태원은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일원에 건축면적 5만 9000㎡로 2009년 7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생태체험관 및 야외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4년여에 걸친 전체 건립공사를 마무리했다.

갯벌을 매립하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6개 부처와 서천군이 공동협약을 해 2007년 6월 시작된 국립생태원은 사업 확정 이후 총 2단계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바탕으로 국외 우수사례 조사 14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4회, 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됐다. 아울러 11월 22일과 23일에는 국제심포지엄도 개최되었다.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으로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취임했다. 최 원장은 1990년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한국생태학회장 등을 거쳐 2006년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로 부임해 강단에 서 왔다. 올해에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Jane Goodall) 박사와 함께 생명다양성재단(The Biodiversity Foundation)을 설립하기도 했다.

국립생태원은 그 기능이 자연사박물관, 생물자원관, 식물원, 동물원과 흡사하면서도 이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다. 생물자원관은 동시대의 식물과 동물의 표본을 구하고 분류·정리한다. 식물원과 동물원은 생물종을 분류하고 전시하며, 때로는 서식지 바깥에서 이들 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사박물관은 동시대뿐 아니라 과거의 유물까지 포함한 생물, 지구과학, 자연인류학 및 고고학 자료를 보관·전시하는 곳이다. 생태원은 생태계와 동식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시·교육이라는 양대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국립생태원은 7개월간의 임시개방 동안 총 259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 255개 학교의 7158명이 무료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국립생태원의 교육일반과정은 단체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에서부터 유아, 초등, 중등, 고



등 및 성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해 진행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이 함께하는 생태오감충전 1박2일 캠프, 어린이를 위한 습지 및 멸종위기동물 교육체험, 극지관 체험,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험 등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직접 만지고 행동하는 놀이를 통한 체험교육이 진행됐으며 2014년 정식개관 이후에도 이와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이 계속 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보고듣는 어린이위주의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태원은 우리나라 생태보전과 생태자원의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한국 최고의 국제연구원 기능도 한다. 생태전문가가 몰려들고 생태원이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일에 앞서며 서해중부권 경제를 일으켜세울 새만금과 대덕연구단지를 옆으로 끼고있어 경제부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기대가 크다.

또한 국립생태원의 랜드마크인 생태체험관(에코리움)은

준공 이후 건축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3 한국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과 건축적 성취도 및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물에 수여되는 2013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올해 베스트7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국립생태원은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 말한 자연사박물관, 생물자원관, 식물원, 동물원의 일반적인 분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류된 생물들 간의 관계, 생물과 물리적 환경의 관계 등을 전부 아우르는 생태학에 기반을 둔 구조로 되어 해위를 더불어 여태까지 국내에서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생태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국립생태원의 정식 개관될 봄을 손꼽아 기다려보자. 정식 개관일은 아직 미정이다.



월동보호대·줄기감기·막덮기부직포 앤스프레이·스위티·우드칩멀칭

한국원예자재 감성호대표



줄기감기

효과적인 월동대책

월동은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매년 맞이하는 행사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동해로 수목이 약해지거나 일부 해를 입기도 하고 심하면 죽게 된다. 추운 곳에 갈나무나 호두 나무를 심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지 끝이 매년 자랐다가 죽기를 반복하여 건강한 생육이 어렵게 되므로 적지 식재가 중요하다. 동해를 입으면 수목이 쇠약해지고 병충해가 침범하기 쉬운 상태로 되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건강한 생육이 어렵게 된다. 동해가 심할 경우 죽게 되면 그간 공들여 기른 노력이 허사가 되고 새로 심어야 하므로 매년 월동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정상 기후 하에서의 원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급격한 기상 변화를 몰고 오는 이상 기후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제 수목 위주로 몇 가지 원인 별 증상과 대책을 열거해 본다.



앤스프레이

	원인	증상	대책	해결방안
1	내한성이 약한 수목 근본적으로 추위에 약함	근본적으로 추위에 약함	적지 아닌 곳에 식재 하지 않는다. 보온 방풍	복풍 막아주고 양지 바른 곳에 식재 월동 보호대로 싸주기
2	새로 심은 묘목, 이식한 수목	내한성 약하고 쇠약해짐	보온 방풍	월동 보호대 줄기 감기
3	급격한 온도 변화 봄의 늦추위, 가을의 이른 추위, 여름의 무더위	갑작스런 추위에 연다. 잎눈 이 나오다 동해 입는다. 여름 의 무더위에 해를 입는다.	재빠른 보온 수액의 농도를 높여 내 한성을 높인다	막덮기 부직포 덮기 (묘목, 채소) 앤스프레이 살포 (지상부에 왁스 코팅) 스위티를 관주한다. (봄~이른 가을)
4	토양 표면의 심한 추위	토양에 닿는 부분의 동해	토양 표면에 멀칭하여 온 도 상승	우드칩을 10cm 이상 두께로 멀칭한다.
5	과습으로 인한 동해	수도 파이프에 물이 들어있는 채로 얼면 동파되듯이 습기 과다로 인한 동해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고랑을 파서 배수시킨다.
6	낙엽이 지지 않고 늦게까지 자란다.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자라서 추위에 연약해진다.	가을 늦게까지 자라지 않도록 한다.	여름까지만 비료를 주고 가을에는 끊는다.

정원준비

냉한기의 1월



1월은 정원 눈, 서리, 강풍 힘 바람 그리고 호우에서 보호 필요로 할 수 있었다. 겨울나무 감싸주기, 매어주기, 내한성이 약한 식물에 흙 돌아주기 등 등의 피해를 줄이도록 돌아보아야 하고, 빛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식물은 밝은 위치에 식물을 이동 하십시오. 새 먹이 유지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 동안 그들을 위한 음식이 부족합니다.

이달의 할일 Tip

- 2014년 심을 식재의 종자구입이나 관상수의 정보를 사전 점검한다.
-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었다면 분쇄 하여 재활용 뿌리 덮개의 재료로 사용토록 한다.
- 화창한 날씨에는 온실 환기가 필요하다. 실내정원도 환기가 필요하다. 눈이 많이 오면 온실의 눈을 쓸도록한다.
- 잔디의 가장자리와 모양을 잡을 수 있는 시기
- 알뿌리 식물들의 저장기 양호한가를 확인하고 곰팡이가 없도록 닦아준다.
- 사과, 배 나무 가지의 병충해나 곰팡이를 재확인하고 2~월에 가지치기
- 2014년 채소밭의 이동식 작물 계획을 정리한다.
- 새들에게 물과 먹이를 공급한다.
- 과실 나무들의 동면을 살피고 냉해가 입지 않도록 재점검한다. 야외 복숭아와 천도 복숭아 잎 겹에서 그들을 보호 하기 위한 polythene 대피 준비
- 클라멘터스, 알뿌리등과 같은 고급 종의 식물과 종자는 사전 주문하여 둔다.
- 실내의 온기를 이용 딸기등 은 씨앗이나 딸기농장에서 즐기주문도 가능. 봄에 수확을 얻는 재미를 갖는다.





오색(五色) 채소의 매력 알아보기

도시와 함께 하였던 농업이 20세기 초 '도시화'로 분리되면서 도시에는 환경오염과 개인주의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과 여유, 환경, 나눔 등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도시와 농업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으며 도시농업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여가활동에서 느낄 수 없던 다양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가꾸는 재미

하루하루 변화하는 생명의 성장을 관찰하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경험

■ 뿌듯한 자부심

주부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직접 기른 채소를 식탁에 올리면서 행복을 느끼고 도시농부로서 환경을 지킨다는 데서 뿌듯함을 느낌

■ 몸과 마음의 건강

농사일로 육체노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생명체와 교감하면서 정신적 안정도 이룸

■ 먹는 즐거움

직접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 거리를 밭에서 바로 수확하여 맛보는 즐거움을 체험

1. 암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GREEN

양배추, 시금치, 오이, 피망, 녹색파프리카, 브로콜리, 셀러리, 아스파라거스, 매실, 대추, 아보카도, 키위 등에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셀로라펜(Sulforaphane)'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양배추, 배추, 케일 등의 녹색 잎사귀에는 발암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인돌'이 다량 함유돼 있으며 유방암을 예방하고 간의 독소를 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시금치, 원두콩, 키위, 아보카도 등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건강한 눈을 만들어 준다.



2. 암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RED

붉은 고추, 토마토, 딸기, 자두, 사과, 수박, 오미자, 석류, 대추 등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다. '폴리페놀'은 발암물질들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수용성으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특히, 토마토, 수박, 자몽, 구아바, 파파야 등의 붉은색 성분에 들어 있는 '리코펜'은 폐암을 예방하고 남성의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혈액 응고 위험을 줄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며 붉은 양배추, 적포도, 체리, 블루베리 등에 많은 '플라보노이드'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3. 노화, 암세포 생성 억제 효과가 있는 YELLOW

당근, 호박, 늙은 호박, 노랑 파프리카, 파인애플, 유자, 망고, 밤, 파파야, 귤, 오렌지, 감, 살구, 황도 등에는 노화, 암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채소나 과일의 노란색은 '베타카로틴'과 약간의 '알파카로틴'에서 나온다. 이 성분은 건강한 피부와 야간 시력에 필수적인 비타민A로 전환되어 안구건조증, 야맹증, 백내장의 예방과 세포분화 등에 효과가 있다.



4.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WHITE

마늘, 무, 양파, 콩나물, 감자, 도라지, 버섯, 생강, 바나나, 백도, 배 등의 흰색 음식에 들어 있는 '안토크산틴'도 노화억제와 항암작용을 한다. 마늘, 양파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도라지의 '사포닌'도 항암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두부, 두유, 대두, 콩가루에 함유된 '다이아제인'과 '제니스테인' 등의 '파이코스테롤'은 항암작용과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오색채소의 매력 알아보기

5. 노화방지와 갱년기 장애 극복에 효과가 있는 BLACK

검은콩, 검은쌀, 검은깨, 김, 미역, 다시마, 오징어 먹물 등과 같은 검은색 식품에도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와 항암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 검은색 곡류와 해조류 등에 풍부한 '셀레늄', '레시틴' 등 여러 무기질과 비타민이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인 '레시틴'은 학습능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검은 콩에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갱년기 장애 극복에 효과가 있다.





스마트 화이트 파스타

Smart White Pasta

글·사진 윤자영 요리연구가

요즘은 스마트가 유행이다. 말 그대로 똑똑하고 영리하고 제가 알아서 다 하는 스마트폰 현상을 반영하는 듯 하다. 하지만 스마트란 말은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말 이전에 맵시있고 우아하다는 의미가 먼저다. 엘레강트하다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smart다. 기본에 충실하고 맵시를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스마트 파스타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번 연말연시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한다. 눈처럼 하얀 화이트 파스타를 준비하면서 우아하고 맵시있는 연말연시를 맞는다면 그러저럭 이번 연말을 스마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Tip

해물파스타를 준비할때 빠져서 안되는 것이 바로 오레가노라는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는 쓰임이 많고 종류도 많아 선택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번 호 요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베이컨, 표고버섯, 오징어, 새우, 생크림, 계란1개, 치즈가루(그라파파다노로 유명한 단단한 치즈를 갈았습니다),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파스타, 고수이파리



요리

1. 올리브유를 적당히 두른 뒤, 잘게 썰어 둔 베이컨과 표고버섯을 익힙니다. 이때 베이컨이 바삭할 정도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컨과 버섯 모두 크기가 작아지고 일반적으로 베이컨의 기름이 사라질 정도, 빨갛고 딱딱하게 씹힐 정도로 익으면 체에 기름을 빼어 기름종이에 올려 기름은 온전히 제거합니다.
2. 물이 끓으면 파스타와 해물을 한꺼번에 넣고 오레가노와 올리브, 소금을 함께 넣습니다. 이때 올리브유는 수저로 한 스푼, 오레가노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정도 뿌려줍니다. 올리브를 넣으면 파스타 즉, 면이 엉겨붙지 않아 전반적으로 10분 이상 뚜껑을 덮고 기다리는 면요리에 제격입니다. 스파게티로 더 알려진 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면들을 통틀어 파스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리본 모양의 파스타를 선택했습니다. 봉투에 알맞은 시간이 항상 적혀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12분입니다.
3. 생크림은 1인분기준으로 반 컵, 2인분기준이면 한 컵 정도 양이면 적당합니다. 거기에 소금, 후추를 넣고 계란 한 알을 통채로 넣습니다. 잘 갈아 두었던 혹은 이미 갈려 있는 치즈가루를 넣고, 베이컨, 버섯을 넣습니다. 잘 저어준 뒤 물기를 빼둔 파스타와 잘 익은 해물 위에 부어 약 2분간 중불에서 잘 저어 크림과 계란이 약간 걸죽한 정도로 익혀주세요, 잘 저어 주지 않으면 계란이 익어버려 맛이 없습니다.
4. 그릇에 올린 뒤, 고수를 얹어 손님상에 내 놓으면 추운 1월도 크림파스타로 따뜻하고 고소한 겨울의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남은 재료로 한국식 통양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스타와 해물을 삶은 국물에 새우 두 마리를 넣고 표고버섯, 고수를 넣은 뒤 올리브 유 한스푼과 추어탕에 넣는 산초가루 작은 티스푼, 토마토 소스 약간을 곁들였습니다. 물론 태국식 통양공에는 열대 향신료와 레몬그라스, 및 태국식 액젓이 필요하지만 얼추 비슷한 향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집에 산초가루가 있으신 분은 고수와 생강만으로 통양공의 맛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에 대한 탐구

정원을 말하다

지은이 로버트 포그 해리스 | 옮긴이 조경진, 황주영, 김정은 | 나무도시 | 18,000



이 책의 원제는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이다. 저자인 로버트 포그 해리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는 책을 통해 정원이 인간의 조건에 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방식에 대해 사려 깊고 폭넓은 탐구를 이어나간다. 고대 철학자의 정원에서부터 현대 뉴욕의 집 없는 이들의 정원까지 저자는 어떻게 정원이 역사의 파괴와 손실을 저지해왔는지를 보여준다. 해리스는 고대인들이 마음의 평정과 깨우침에 필수적인 자기함양과 자기발전의 모델이자 장소로 정원을 보았고, 이러한 인식은 이후로도 수세기 동안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많은 서양 고전과 근현대문학, 철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정원의 개념과 실재가 유한성과 질서, 힘에 대한 인간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care이다. 저자는 이를 '돌봄'과 '걱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돌봄'과 '염려'를 상징하는 쿠라 여신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기에, 인간의 본성에는 흙을 돌보고 염려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원사로서 인간이 이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보고 있다. 정원사는 일 년 내내 한결같이, 심지어 '날씨까지도 경작하며' 정원을 돌보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정원을 걱정해야 하는 운명이다. 거대하고 강력한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은 정원을 돌보며 겸손을 배우게 되고, 따라서 흙을 경작하는 일은 인간성을 가꾸는 행위로 확장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원사로서 인간은 자신이 가꾸는 한 뼑의 땅에서부터 지구 전체로까지 관계를 확장하고, 사고와 인식의 폭을 넓힌다. 경작과 돌봄은 생명이 생겨나 유지되려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흙에 관한 진실을 들려준다.

- 본문 옮긴이의 글 중

지은이 로버트 포그 해리스(Robert Pogue Harrison)은 스탠포드 대학교 이탈리아문화학과 교수로, 유럽 문화사학과 이탈리아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탈리아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2세까지는 터키에서 성장했으며 이후 이탈리아로 이주하였고, 문학박사학위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받았다. 그런 성장과정 덕분에 터키어를 비롯하여 4개 국어에 능통하고, 서구문화사에 두루 정통한 저술가로 인정받고 있다. 1994년 시카고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Forests: The Shadow of Civilization』은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된 저작이다. 이 책에서 그는 문학, 종교, 신화에서 서구인의 상상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상징화되고 재현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정원을 말하다』처럼 여러 문학작품을 인용하면서 서구의 문화적 상상력 속에서 숲이 차지하는 가치와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그의 또 다른 대표 저서로는 2003년에 출판된 『The Dominion of the Dead』가 있다.

옮긴이 조경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수학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현대조경에서 재발견되는 정원문화'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건축·도시·조경의 지식지형」(2011, 공저) 등이 있으며, 「정원의 역사」(2005)를 감수한 바 있다. 황주영 박사는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역서로 「파리의 심판」(2008)이 있다.

도시 농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도시농업

지은이 데이비드 트레시 | 옮긴이 심우경, 허선헌 | 미세움 | 17,000원



도시민들이 그들의 식량을 직접 재배하는 것은 ?

도시에서 농사짓는 풍경은 ?

"어떻게 감히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수 있죠?" 이 말은 저자인 트레시가 밴쿠버의 한 공동체에 가서 도시 농업을 알리고 공동체 텃밭을 제안하자 주민에게 들은 첫마디였다. 다양한 인증이 어울려 공동체 텃밭을 일구는 데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그 마을은, 그가 꾸준히 설득하고 동참하게 만든 결과, 도시에서 식량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식량을 직접 길러 먹거나 재배하는 과정을 가까워서 본 식량을 사먹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기른 것인지도 모른 채 큰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환경에 대해 무관심해 질수록 우리 삶 또한 피폐해진다.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빙하기 녹고 이상기온으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는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우리의 먹을거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둔감해진 듯하다.

텃밭, 더 나아가 농사를 비단 나이 먹은 구세대가 하는 소일거리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도시농업'을 번역한 심우경 교수는 몇 해 전부터 학생들에게 텃밭을 일구어 보고 그 방법을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알리고 함께 수확물을 얻는 것을 함께 밟아오고 있다.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실패도 경험하고 몸이 익힌 방법을 또 다른 이와 나누고 수확물을 얻으면서 스스로 놀라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심우경 교수는 관찰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심 교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일상에 자연

스럽게 파고든다면 세대를 떠나 모든 도시민이 즐길 수 있고 산업화에 밀린 공동체의식도 되살아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 책 '도시농업'은 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시작하라고 손을 내민다.

이 책은 수십 년 생활터전인 도시를 떠나 귀농을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말농장엔 숙제하듯 다니지 않아도 된다. 얼굴도 몰랐던 이웃과 땅을 일구고, 쓰레기로 가득했던 자투리땅이 과일과 야채가 넘치는 비옥한 경작지로 변모하고,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공터나 건물 옥상에 특수작물을 심어 이익을 창출하고, 주말이면 동네에 가판대를 차려놓고 과일과 채소를 사고파는 모습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도시농업'은 거창한 농업이 아니라 텃밭을 일구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초보자부터 도시 농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정비할 전문가나 공무원까지 다양한 독자들을 위한 책이며, 세계 곳곳의 도시 농부들의 시작과 실패와 성공을 모은 지혜다. 이 책의 저자 트레시는 도시 농부들에게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다며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은이 데이비드 트레시(David Tracey)는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 디자이너, 집단 생태학자다. 그는 정책, 문화환경 전반에 걸쳐 활동하며 그의 글은 CBC Radio 등 많은 곳에 소개되고 있다. 그는 또한 《Guerrilla Gardening: A Manifesto》와 소설 《The Miracle Tree》를 저술한 바 있다. 그의 환경 디자인 회사인 EcoUrbanist는 텃밭 당 텃밭에서부터 공동체 과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검증된 수록 재배법인 데이비드는 '사람과 나무가 함께 자라는 것을 돕는' 환경 단체인 TreeCity의 전무이사이기도 하다.

가든조아에 유럽스타일 2014년 고품격 신상품이
출업식, 입학식, 기념일 이벤트용 선물이 숨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꾸러미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전화주문/예약 가능합니다.

서둘러 주문 주세요^^

구입문의 031)712-7001 / www.gardenjoa.com



기린가족 (2개 세트)	말~로킹체어 (2014년 말의 해)	양~세라믹 (2015년 양의 해)	발렌타인 하트향초	프렌치 캔들 디자인소품
24,800	13,000	15,000	8,000	25,000
빈티지 액자	빈티지 액자 (소 2개)	빈티지 소품장식	패밀리 사진액자	세라믹 앵두액자
12,000	14,900	39,900	23,200	23,500
애벌레	베짱이	발렌타인 아로마향기	세라믹 잔디인형 세트(6개)	걸이형칠판
11,900	9,900	11,000	14,500	42,900

새해맞이 신상품 선물용품 보유 / 한정판매!! 가든조아에서 만나보세요.



가든인 월간 잡지에서

정원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독자와 정원의 디자인
문화의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의 디자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4년 1월~3월 5일까지
- 응모기간 : 4월~9월, 월1회씩 선정 및 전시
- 전시장소 : 우리꽃농원 (이천시 모가면)
- 참가대상 : 학생~일반인, 전문인
- 신청규격 : 사이즈 3mx6m (식재디자인포함)
- 접수처 : hyh.gardenin@gmail.com
담당자 한윤희 Tel. 031-712-7001
- 주 최 : Gardenin잡지&우리꽃영농조합법인



[가든인 정원디자인 공모전]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 제공

■ 정기 구독자에게 테르메덴
무료이용권 2매(10만원 상당)증정

문의전화

Tel.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GARDENIN 50% 할인권
할인가구독 정기구독이벤트 [기간 2014. 1. 1 ~ 2014. 2. 31]



정성껏 만든 월간 잡지 <가든인>에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사에 대한 공감한 점이나 흥미로운 기사 등 무엇이든지 적어 기
한인 본인으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의 활기찬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 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your email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정기구독

16.6% OFF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 박화수(주)

농협 355-0023-7618-13

(입금 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문의 : 031-712-7009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 약함은 우편발송을 위해 정확한 주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355-0023-7618-13

예금주 박화수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 할인권

[기간] 2014. 1. 1 ~ 2014. 2. 31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물로 판매 및 영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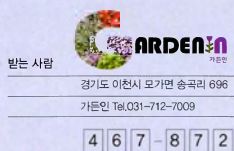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4 6 7 - 8 7 2

발행처: 벽화수(주)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꽃 대표 / 이학박사
편집인: 이영
전문위원: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준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주)그린메이커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박사
우정아 경기조경기대대학 강사 / 가든디자이너
유정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식 서울과학기술대 환경일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황원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직원기자: 김지태 jsummer@gmail.net
황주리 jurie777@hatmail.net
디자인인쇄: 보마드 bomad@naver.com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럽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올 컬러 사진 제공
- 혼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혼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올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20,000원 (정가 32,000원)



우리꽃 031)634-7990 / 가든조아 031)712-7009

테르메덴 50% 특별할인권
유효기간 : 2014년 1월 31일까지
1명 4인 사용가능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채터드온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채터드온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채터드온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단체 및 도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